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소년 평양

항상 준비!

六.六절

소년단

1963.6

㊷시

아름답게 꽃피라고

박 세영

이 땅에서 자라는 꽃봉오리들
모두 아름답게 꽃 피라고
모래'불에 핀 붉은 해당화처럼
마음들도 향기로우라고.

넓은 동해 바다 수평선 저 멀리
바다 같은 희망을 품고
길길이 뻗어 오른 솔장막 같이
꿋꿋이 자라들 나라고.

원수님은 여기 터를 잡아 주시고.
소년단 야영소 지어 주셨다.
행복을 꽃구름처럼 안고
줄기찬 바다 물'결 같이 세차라고.

그래서 분단 동무들까지　여기서
함께 뛰놀고 학습하도록
아름다운 조국을 가슴에 새기도록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집이다.

세상에서 이렇듯 훌륭한 야영소
어디를 가도 내 못 보았다.
식탁과 침대'머리에도 따뜻한
원수님의 손'길이 닿아 있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동무들은
내 어린 시절과는 하늘 땅 사이구나.
내 길'가의 조약돌처럼 채우기만 할 때
왜놈과 부자'집 자식들만 들싸던 송도원.

동무들은 구리빛 앞 가슴으로
거세찬 파도를 맞 받아 나가고.
갈매기들도 부럽게 춤과 노래로
6월의 명절을 즐기누나.

타오로는 우둥'불에 얼른 거리는 얼굴들
행복이 너울 너울 춤을 춘다.
오늘을 밝혀 온 밀림의 우둥'불이
불씨되여 맹세의 불'길로 타오른다.
원수님을 따라 활짝 꽃 피겠노라고.

1963. 6—

《소년단》 1963년 6호 내용

김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3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 천

(3)

원수님께서 팔도구를 떠난지도 이제는 거의 열흘이나 되였습니다. 처음 2~3일 동안은 종다리와 허벅다리가 땡땡해지고 몹시 피곤하더니 4~5일이 지난 후부터는 다리가 풀리면서 그리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여러 날 걸어 오는 동안에 고개도 많이 넘었고 산'비탈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웬 산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을 하나 지나면 또 다른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었습니다. 사면을 둘러 보아도 산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군데만 바라 보아도 그 산 너머에는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넘은 편에는 또 다른 산이 있군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우거진 산도 있고 구불구불한 소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산도 있고 나무라구는 한 그루도 없는 산도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그 많은 산들을 쭉 들어 가게 하는 무슨 기계가 있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산들을 모두 논이나 밭으로 만들었으면 조선 사람들이 쌀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술을 피우는 기계는 옛날에도 있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감투》니 《화수분》이니 하는 요술을 피우는 물건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산을 쭉 꺼지게 하는 그런 요술 기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그런 기계를 한 번 만들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원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 크지 않은 어느 마을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만 트이고 3 면은 산으로 둘러 싸였는데 마을이 삼치 안과 비슷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살구나무가 무척 많았습니다. 살구 꽃은 아직 피지 않았으나 망울이 부풀어 오른 모양인지 살구나무가 붉으레하게 보였습니다. 살구 꽃이 활짝 피면 이 마을은 꽃으로 뒤 덮일 것만 같았습니다.

원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바라 보았습니다. 어느덧 원수님의 머리에는 옛날 보던 만경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비탈을 일쿠고 거기에 복숭아 나무를 심던 할아버지의 모습도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지금쯤은 그 복숭아나무두 굉장히 컸을거야.)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줄곧 마을을 둘러 보았습니다.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는 그리 손도 가지 않고 자래울 수 있으니 좋아,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으니 좋아, 여름에는 맛 좋은 살구를 먹을 수 있으니 좋은데 다른 마을에서는 왜 이런 과일나무를 심으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 조선 사람들이 일제히 약속을 하고 매 집마다 살구나무니, 복숭아나무니, 사과나무니, 배나무 등을 심었으면 얼마나 좋을 가 싶었습니다.

원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산판을 바라 보았습니다. 산을 쭉 들어 가게 하는 기계는 없다더라도 그 많은 산판에 모두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것 보다 못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은 지금까지 걸어 온 천리'길을 다시 머리 속에 그려 보았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였습니다. 조선의 길이란 길을 다 이어 놓는다면 하늘이라도 지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리'길이나 되는 그 길 량편에는 그냥 비여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고 많은 그 길 량편에만 과일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조선 사람 전체가 먹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길'가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마다 따 먹겠으니까 안 심는걸가?)

원수님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오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어질고 선량한 사람들이였습니다. 장손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남의 물건을 탐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심은 과일을 탐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어째서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승용차였습니다.

원수님은 자동차를 한 번 타 보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일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걸어 오는 동안에는 별로 려비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길 옆에 척 비껴 서고 자동차를 바라 보며 손을 척 들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원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멈출 생각도 하지 않고 휘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옛날에 만들었는지 천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바람에 펄럭거리고 옆에 달린 창은 모두 깨져 나갔습니다.

길'가에 서고 있던 원수님은 애꾸지 먼지만 뒤집어 썼습니다. 원수님은 모자와 옷의 먼지를 털며 달아나는 자동차 뒤'모양을 물끄러미 바라 볼 뿐이였습니다.

《싱거운 놈 따위, 누가 뭐 그저 타자는 건가.》하며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언덕을 넘고 다리를 건너 다시 퍼그나 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짜르릉》 하고 자전거 소리가 났습니다.

원수님은 길을 약간 비껴 서면서 자전거를 따라 길을 다그쳐 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얼럭덜럭한 캡을 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에 검은 가죽 가방을 든 솜씨가 군청이나 면 사무소 같은 데서 일하는 관청 나부랭이 같았습니다.

자전거가 휘 지나치자 원수님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벋침'대가 고장난 모양인지 《철거덕》소리가 요란히 들렸고 울툭불툭한 신작로를 달릴 때마다 안장판에서는 연신 삐거덕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양복쟁이는 뒤로 누가 쫓아 오는지 몰랐던 모양인지 얼마 후에야 뒤를 힐긋 돌아 보며

《짐판 잡지 말어!》 하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하며 원수님은 계속 자전거 뒤를 따랐습니다.

양복쟁이는 그 후에도 흘금흘금 뒤를 돌아 보는 품이 사람을 몹시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은 한편 아니꼽기는 하였으나 이 자가 얼마나 빨리 가나 보자하고 계속 쫓아 갔습니다.

그 자는 허리를 까부리더니 몸뚱이를 갸우뚱거리며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따를 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 놈의 마음썽두 자동차 운전수만큼이나 사납구나.)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마에서는 어느덧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을 넘자 길 옆으로 맑은 내'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모자를 벗어 보자기와 함께 나무'가지에 걸어 놓고 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손으로 움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주 시원했습니다.

원수님은 모자를 쓰고 다시 길을 계속하려고 할 때에 뒤에서 《왈랑절랑》하고 왕방울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빈 소달구지였습니다.

원수님은 달구지라도 쫓아 갈 료량으로 신작로로 나섰습니다. 달구지'군은 달구지 앞 쪽에 모로 걸터 앉고 노래를 갈그러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똑똑히 알아 들을 수 없는데 달달 굴며 넘기는 품이 아주 그럴듯 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다가는 때때로《이랴 이랴》 하고 소리치군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황소는 목을 성큼 들고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걸음을 다그치군 했습니다.

원수님은 아주 좋은 길 동무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까지 이렇게 같이 갔으면 도무지 가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카시아 가로수들이 드문드문 서고 있는 곧은 길에 들어 섰을 때였습니다. 노래만 계속 부르던 달구지'군은 뒤를 흘깃 돌아 보더니

《학생은 어디까지 가나?》 하고 물었습니다.

《평양까지 갑니다.》

《평양까지? 그 어지간히 먼 길을 가는구만.》 하며 그는 다시 원수님을 바라 보는 것이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왔는데요 뭐.》

《어디서 떠났기에 다 왔다구 하나?》

《장백 팔도구에서 옵니다.》

《그럼 북간도에서 여기까지 걸어 온단 말이지?》

달구지'군은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네!》

《학생 참 용한데! 다리 아프겠는데 달구지라두 타라구.》

《괜찮습니다.》

《허! 사양이 배 부르나? 어서 타라구, 그 만만한 다리가 오직 아프겠나.》

달구지'군은 고삐를 팽팽히 잡아 당기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머리를 성큼 들고 계속 성큼성큼 걷고 있었습니다.

《워워!》하며 달구지'군이 크게 고함을 친 후에야 황소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 어서 올라 타라구.》

이렇게 달구지를 세워까지 주는데 더 사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달구지에 척 올랐습니다. 달구지에 오르니 정말 편했습니다. 이 날은 유달리 바람'기도 없고 날씨가 매우 따뜻해서 다리가 파곤했는데 자전거까지 한참 따르다 나니 종다리가 막 뻥뻥해졌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달구지에 올라 앉아서 아까 지나친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지금 타고 가는 달구지들을 비교해 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동차를 타려다가 타지도 못 하고 애꾸지 먼지만 뒤집어 썼고 양복쟁이는 자전거 뒤도 쫓아 가지 못 하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달구지'군은 일부러 달구지를 세워 가지고 같이 타고 가자고 하지 않는가? 빠르기로 말하면 달구지는 자동차나 자전거에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니, 자전거니 그리고 달구지를 부리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구지'군이 뒤를 흘깃 바라 보며

《그래 학생네 가족두 만주에 들어 갔나?》 하고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구 우리 형제

들은 팔도구에서 살구 우리 할아버지네는 만경대에서 삽니다.》

이 말을 듣자 달구지'군은 다시 원수님을 바라 보며 《학생 아버지 성함이 뭐지?》
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김 형직 이라구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달구지'군은 깜짝 놀라는 것이였습니다.

《아니 그럼 학생이 김 선생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는 반색을 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가요?》

원수님도 뎡달아 반가와 했습니다.

《해라 한다구 나빠 말아라.》 그는 담배'불을 끄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알다 뿐이겠니. 너의 아버지가 바루 우리 선생님이였는데! 야! 이거 정말 반갑다! 그래 부모님들은 무고들 하시냐?》

《네!》

《너를 만나니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다. 그리구 보니 네 모습두 아버지 모습하구 비슷하구나.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어른이시지! 그 때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

그는 옛 기억을 더듬는 모양인지 먼 하늘을 잠간 바라 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때 홀어머니를 모시구 살았는데 글쎄 열 아홉 살 되도록 낫 놓구 기윽자두 몰랐구나—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우리 강동으로 오시지 않았겠니. 그 때 김 선생님은 정말 고생하셨어! 낮에는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구 밤에는 우리 야학생들을 배워 주구 일요일이면 나무까지 해 왔으니까. 나두 지금 내 이름'자라두 쓰게 된 건 김 선생님의 덕분이였지.》

《그럼 아저씨는 지금두 강동에 계시나요?》

《아니 우리두 이제는 강동에서 떠난지 한 댓 해 됐다.》

그는 종이와 담배를 꺼내 다시 마라초를 마라 붙여 물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김 선생님은 교육자라기 보다두 큰 사상가였어! 그러기 형사 놈들이 밤낮 선생님의 뒤를 밟았단다. 그

리구 선생님은 큰 웅변가였지! 연단에 척 나서서 한 마디 하시면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거든! 울릴려면 울리구 웃기려면 웃기구 마음 대로 했으니까. 그러기 선생님이 연설할 때면 언제나 순사나 형사 놈들이 붙어 있었지. 하기야 트집을 잡아 가지구 연설을 못 하게 하자는 배'심이였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분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혼자 빙그레 웃더니 담배'불을 끄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는데 그 때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모였더랬지. 그 중에는 순사 놈두 있었는데 그 놈은 사복을 하구 한편 구석에 숨어 있었단다. 말하자면 또 트집을 잡아 보자는 것이였지! 그런데 선생님은 그 놈이 와 있는 걸 벌써 알았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그 놈을 빗대두구 말씀하시지 않았겠니.》

《뭐라구요?》

《조선은 옛날부터 단일한 민족으로 단일한 력사를 가지고 살아 왔다. 외래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범할 때에는 남녀 로소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 싸우지 않았는가. 행주산성 싸움에서는 녀자들이 치마폭에 돌을 담아다가 용감하게 싸웠다. 조선 사람은 예로부터 제 나라 제 민족을 사랑하여 왔다. 어찌 오늘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조선 사람치고 누가 일본 놈들을 좋아하겠는가. 군청 서기도 산림 간수도, 순사도 내 생각에는 구복이 원수가 되여 그 노릇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주먹을 흔들면서 연설을 하시지 않았겠니. 그랬더니 그 놈두 아마 찔리는 데가 있었던 모양인지.》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있었지! 선생님이 연설을 끝낸 후에 슬그머니 찾아 왔더라누나.》

《그래서 뭐라구 하더라나요?》

《노상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의 말이 옳소, 난들 하구 싶어서 이 노릇을 하겠소, 목구멍에 때를 지우기 위해서 이 지랄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똑똑히 알았쉬다. 이 놈의 노릇 아니면 설마 굶어 죽겠소. 내 이 놈의 노릇을 당장 걷어 치우겠쉬다.〉 이렇게 말하더라누나.》

《그래서 순사 노릇을 그만 두었는가요?》

《그만 두었지! 사직서를 내구 돌아 가면서 제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구 했다는데 글쎄 그 후에는 어떻게나 됐는지!》

《아주 재미 있는 얘기구만요.》

《글쎄 순사 놈까지 그쯤되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됐겠니. 그리구 그 때 강동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남녀 로소 누구를 막론하고 탄복했단다. 그런데 그 악독한 놈들은 선생님을 불시에 붙들어 가지 않았니. 글쎄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다구. 참 기가 딱 막힐 노릇이지! 선생님이 붙들렸다는 말을 듣구 강동의 청년들은 모두 경찰서로 밀려 갔단다. 그러니 맨 주먹으로 소용 있어야지! 선생님은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였지… 그 때 나는 밤 새도록 울었다. 그야 나뿐이 아니였지… 가출옥으로 나와서 중국으로 들어 갔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이렇게 너를 만나리라고는 생각인들 할 수 있었겠니.》

그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 보며 무엇을 골돌히 생각하는 것이였습니다.

《하기야 선생님을 무슨 면목으로 만나겠니…》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어느덧 쓸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본 놈을 반대해서 싸워야 한다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 이 꼴이 됐다.》

그는 혼자'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 사이에 황소는 달구지를 끌고 언덕을 넘고 마을을 지나고 벌을 건너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자그마한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그리 많지 않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리'집들은 모두가 음식점이거나 상점들이였습니다.

《작은 거리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장날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요 산 너머 큰 공사판이 벌어졌단다. 저기 산'비탈을 보렴! 고압선을 늘어 놓지 않냐. 공사장으로 전기를 끌어 놓는 모양이더라. 놈들은 우리 나라의 금은 보화를 몽땅 빼앗아 가자는 게지! 요즘 이 거리의 날도적들은 이깔에 돈푼이나 긁어 보자구 눈들이 벌컥 뒤집힌 모양이더라. 봐라, 집집마다 술집이 아니냐.》

그렇게 인자하고 상냥하던 분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목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그는 한 국수'집 앞에 가서 달구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마니를 내리어 소여물을 꺼내 주더니

《들어 가서 국수라두 한 그릇 먹구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원수님은 사양할 수도 없고 하여 그가 안내하는 대로 좇아 들어 갔습니다. 방안에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국수를 먹는 사람도 있고 더운 물을 종발에 붓고 후후 부는 사람도 있고 국수는 아직 들어 오지도 않았는데 저'가락부터 짜글려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수를 청하는 사람, 간장을 청하는 사람, 더운 물을 청하는 사람, 김치를 청하고 식초를 청하는 사람, 정말 떠들썩 했습니다. 입 가진 사람은 모두 몇 가지씩은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손님들이 청하는 것을 제때에 가져다 주지도 못 하면서도 《네, 들어 옵니다.》 하고 대답만은 서근서근히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새판에서도 어느 손님이 몇 그릇을 먹고 어느 분이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깡그리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달구지'군은 국수 네 그릇을 청했습니다.

(이 아저씨두 국수를 어지간히 즐기시는 모양이구나.)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들은 한편 구석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국수는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달구지'군은 더운 물에 간장을 쳐서 저'가락으로 휭휭 젓더니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였습니다.

얼마 후에 국수가 들어 왔습니다.

《자, 두 그릇씩 먹기다.》 하며 달구지'군은 두 그릇은 원수님 앞으로 옮겨 놓고 두 그릇은 자기 앞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저는 한 그릇이면 됩니다.》 하며 원수님은 국수 사리를 저'가락으로 풀었습니다. 국수는 큰 대접에 거의 찼습니다.

원수님은 반 그릇도 채 들지 못 했는데 그 분은 벌써 한 그릇을 다 먹고 다른 그릇을 끌어 당겼습니다. 그는 두 번째 국수 그릇도 게눈 감추듯 했습니다. 원수님은 한 그릇으로 만복이였습니다.

《자, 한 그릇 마자 들어야지.》

《아닙니다. 한 그릇두 겨우 먹었습니다.》

원수님은 더운 물을 고뿌에 따루었습니다.

《국수야 두 서너 그릇 먹어야지.》 하며 그는 남은 그릇을 마자 끌어 당겼습니다.

그들은 국수'집에서 나왔습니다. 달구지'군은 옆집에 놓여 있는 엿고리 앞으로 가더니 깨엿을 몇 가락 사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헤여져야겠는데 이거 정말 섭섭하구나,》 하며 종이에 싼 엿 꾸레미를 들려 주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은 굳이 사양했지만 그 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원수님은 하는 수 없이 엿 꾸레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그 분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 넣었습니다.

《야, 아거 정말 꿈'결에 만났던 것 같구나, 공부 잘 하구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여라.》

그는 원수님의 두 손목을 꼭 잡고 신신 부탁하는 것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원수님은 남쪽으로 향했고 그 분은 동쪽 길로 달구지를 몰았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한 천 추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빨리빨리 나가자
제국주의 군벌들은 죽기를 재촉코
강탈과 학살을 여지 없이 하누나

6 월의 거리거리를 힘차게 행진하며 부르는 아이들의 이 노래 소리를 들으니 문득 보천보 전투 때의 구시'골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구시'골 아이들의 이 노래 소리를 등 뒤에 들으며 우리 빨찌산 대원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하에 보천보를 향해 조국에로의 힘찬 진군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땅을 향해 1937년 6월 2일 히샤즈거우의 밀영을 떠난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구시'골이라는 부락에서 하루밤을 지냈습니다.

여기에 사는 조선 사람들은 모두 살'길을 찾아 조국을 떠난 헐벗고 굶주리는 조선 사람들이였습니다.

《유격대 아저씨들이 왔다!》, 《우리 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맨발로 뛰여 다니던 구시'골 아이들!

나어린 그들은 비록 헐벗었어도 힘차고 씩씩하였습니다. 우리 항일 빨찌산과 하나로 뭉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성을 올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두 주먹을 불끈불끈 틀어 쥐며 혁명 가요를 힘차게 불러 우리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6월 3일 아침, 제비동 마루에 올라 그리고 그리던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강들을 바라 보는 나의 눈앞에는 구시'골을 떠날 때 꼭 승리하고 돌아 오라고 맨발을 벗고 멀리까지 따라 나오며 손을 흔들던 아이들의 모습이 얼른거리였습니다.

(왜놈들을 빨리 쳐부시고 그들에게 밝은 앞날을 안겨 주자.) 나는 총탁을 으스러지게 틀어 쥐였습니다.

1937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의 명령은 내렸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원쑤 놈들의 숨통을 향해 죄여 들어 가는 나의 가슴은 높이 뛰였습니다.

구시'골 아이들의 소원을 위하여 한 걸음, 헐벗고 굶주리는 모든 조선 소년들에게 행복을 찾아 주기 위해 두 걸음, 세 걸음…

나의 가슴은 원쑤 일제에 대한 증오로 불탔습니다.

이윽고 원수님의 신호총 소리가 보천보의 밤 하늘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나는 복쑤의 탄알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 두방…승리의 총'소리와 함께 놈들의 기관들에서는 마지막 비명 소리와 함께 활활 불'길이 타 올랐습니다.

나는 그 휘황한 불'길에 어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로 마구 뛰여 갔습니다.

《김 일성 장군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우리를 그러안으며 그들은 감격에 목

이 메여 말을 못 하였습니다. 일제 놈들의 갖은 착취와 억압 속에서 서리고 엉킨 원한과 설음은 보천보의 총'소리와 함께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투쟁의 마음으로 터졌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때 나는 친부모, 친동생을 만난 그런 마음과 기쁨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그러안겼으며 헐벗은 어린 소년들을 그러안았습니다.

이런 때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수님의 두리에 모여 선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이끌려 나온 아이들도 있었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모시고 나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말씀을 한 마디 한 마디 새겨들으며 우러러 보는 그들의 모습,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불타는 그들의 눈'길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눈'길을 보며 나는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의 아이들 모두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세 드높이 떼'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널 때에도 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그냥 울려 주었습니다.

(아이들아, 원쑤들과 싸우면서 우리를 기다려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이 압록강을 다시 건너 와 너희들을 그러안을 그 날은 멀지 않았다.)

마음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구시'골 부락에 닿았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지어 놓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만세!》, 《만세!》 집집마다에서 인민들과 아이들이 뛰여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보천보의 총'소리를 들으며 목이 메게 만세를 불렀으며 활활 타 오르는 불'길에 비친 보천보의 밤'거리를 보며 오늘의 조국을 생각하였을 구시'골 아이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떠나는 우리들을 따라 오며 혁명 가요를 힘차게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르던 그 힘찬 노래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창 밖에서 들려 오고 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소년단원들의 노래 소리입니다.

두리둥둥 북을 울리며 라팔을 불며 소년단원들은 아마 6.6절 모임을 준비하려 광장으로 가는가 봅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소년단원들의 휘황한 앞길을 보며 마음 속으로 외웁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아! 너희들의 앞길에는 희망과 기쁨,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다. 구시'골 아이들이 그처럼 바라던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너희들은 끝 없이 행복하다. 바로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 행복을 위하여 항일 빨찌산 투사들은 15여 성상 굴함 없이 용감히 싸웠으며 조국 땅 보천보에 승리의 홰'불을 올렸었단다.

행복하고 즐거운 때마다 너희들은 언제나 기억하여라. 스물 다섯 해 전의 그 총'소리를 듣고 뛰여 나와 그리운 조국 땅을 건너다 보며 만세를 부르던 구시'골 아이들을!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헐벗고 굶주리던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비참했던 지난날을!》

(2 회)

박 승 수

(2) 조직의 품'속에서

룡남이와 명숙이는 아동단 조직에서 조직의 지도와 방조를 받으며 집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훌륭한 아동단원으로 자랐습니다.

룡남이가 아동단에 입단한 후 첫 번째로 받은 과업은 글을 배우는 것이였습니다. 조직에서는 글을 잘 아는 한 동무가 룡남이를 맡아서 가르쳐 주게 되여 있었습니다.

룡남이는 읽고 쓰는 것을 한 달 동안에 다 배워 냈습니다. 그는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로 다 알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조직에서 주는 첫 위임이라 이악하게 배워 내고야 말았습니다. 조직에서는 룡남이가 공부를 잘 했다고 칭찬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지주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착취하였는가?》라는 책을 주면서 그것을 읽고 아동단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과업을 또 주었습니다.

룡남이는 아직 한 번도 동무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받을 때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였습니다.

룡남이는 그 책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산 속에서 나무를 사람으로 여기고 이야기 련습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룡남이는 그 임무도 잘 수행하였습니다. 더우기 아동단 중대장 동무가 룡남이의 부모들이 지난날 겪은 이야기를 잘 섞어서 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 날 이야기는 실감 있게 잘 되였습니다.

명숙이는 유희대에 들어 갔는데 목청이 고와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명숙이는 다른 데서 이사 왔기 때문에 새 노래를 조금 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혁명 가곡집》을 주면서 보름 동안에 다 배워 가지고 동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명숙이는 다른 중대에서 《꾀꼴새》라고 불리우는 동무에게 찾아 가서 보름 동안에 다 배워 가지고 그 새 노래를 아동단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대단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룡남이가 보초를 잘못 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누구보다도 명숙이가 룡남이를 호되게 비판하였습니다. 룡남이는 처음엔 그 비판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으나 명숙이가 진정으로 하는 것이여서 그만 감동되고 말았습니다.

룡남이는 비판 받은 것을 이악하게 고쳤습니다. 언제인가 지도원 선생이 하신 말씀 대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룡남이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룡남이가 입단한 때로부터 두 해가 흘러 갔습니다. 룡남이는 언제나 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하였으며 단 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룡남이는 훌륭한 아동단원으로 자랐습니다.

(3) 《우리는 아동단원이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눈보라 치는 겨울 어느 날 중요한 통신 련락을 가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통신 련락이 이 번이 처음이 아니였습니다. 벌써 몇십 번 통신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쑤 놈들은 더 간악해지고 교활해져서 그 놈들을 속여 넘기는 것이 여간

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걷던 룡남이는 아무래도 명숙이의 동정 안에 넣은 것이 마음 놓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아, 그걸 네 머리 속에 감추자.》

《머리 속에?》

《머리태 속에 감추는 게 어때?》

명숙이는 그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동정 깃의 종이 쪽지를 머리 속에 넣고 머리를 따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니 그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높고 험한 길청령에서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룡남이는 앞에서 눈보라를 막으며 나아갔고 명숙이는 룡남이를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길청령 어구에 있는 개풍 거리에 들어 섰을 때 눈앞에 갑자기 말 탄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룡남이의 가슴은 섬찍했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올랐고 가볍게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고 대담해야 한다고 하신 지도원 선생의 말씀이 생각키웠습니다.

헌병 놈은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데 사니? 어델 가?》

룡남이는 재빨리 꾸며 댔습니다.

《저희들은 약수동에 살아요. 외삼촌 집에 갔다 오는 길이예요.》

《요놈들 속일려구! 너희들 통신 련락 가댔지? 귀신도 나를 못 속여!》

헌병 놈은 말을 탄 채 가죽 채찍으로 룡남이를 후려 갈겼습니다.

《통신이 뭐예요? 우린 아무 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아파서 외삼촌 집에 갔다 와요.》

룡남이가 우는 소리를 하자 명숙이는 엉엉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원쑤 놈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헌병 놈들은 룡남이와 명숙이를 따로따로 떼여 놓고 몸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룡남이의 가슴에선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헌병 놈들은 명숙이 동정 깃부터 훑었었습니다.

(아, 잘 했구나. 거기다 그냥 두었드라면 당장 발각될 걸.)

그런데 이걸 어쩌겠습니까.

이 번에는 명숙이의 머리태를 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룡남이의 가슴은 돌'덩

이가 떨어진듯 덜컹 했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명숙이는 울음을 그치고 가볍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룡남이는 번개 같이 그 헌병 놈한테 달려 들어 그 놈을 안고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불의의 일이라 헌병 놈은 룡남이를 안고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명숙아, 빨리 먹어 치워! 빨리!》

룡남이가 웨치자 명숙이는 재빨리 통신 쪽지를 꺼내여 입안에 넣었습니다.

순간 룡남이를 뒤지던 헌병 놈이 달려 들어 그 투박한 손으로 쪽지를 삼켜 버리지 못하도록 명숙이의 목을 틀어 쥐고 한 손을 명숙이의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때 번쩍 정신이 든 명숙이는 그 놈의 손을 죽어라고 깨물었습니다.

《앗!》 헌병 놈은 죽는 소리를 지르며 무의식 중에 손을 빼며 목을 틀어 쥐였던 한 손마저 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명숙이는 비밀 쪽지를 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쑤 놈들은 성이 날 대로 났습니다.

말에서 내린 헌병 대장 놈이 다가 왔습니다.

《너희들은 아동단원이지! 똑바로 대면 상도 주고 집에 돌려 보내 주겠다.》 하고 그 놈은 능청맞게 웃음까지 띄우며 얼려 댔습니다.

그러나 룡남이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아동단원들이다! 아동단원은 원쑤들한테 속지 않는다!》 암만 얼리고 달래도 듣지 않으니 헌병 대장 놈도 성이 머리끝까지 올라 비밀을 털어 놓을 때까지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헌병 놈들은 달려 들어 가죽 채찍으로 후려 갈기고 무지한 구두'발로 룡남이와 명숙이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아무 것도 얻어 내지 못한 원쑤 놈들은 악에 받쳐 룡남이와 명숙의 발을 꽁꽁 비끌어 매여 말 꼬리에 매달았습니다. 이 악독한 놈들은 말을 세차게 몰았습니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질질 끌려 갔습니다. 그들의 온 몸은 터져 붉은 피가 흰 눈 우를 물들였습니다.

길청령 마루턱에 다달았습니다.

기절했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자 대장 놈은 돼지 멱 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젠 마지막이다. 대답할테냐?》

룡남이는 비칠비칠 일어 났습니다. 그리고 거연히 서서 대답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강 룡남이다. 그리고 이 애는 박 명숙이다. 우리는 아동단원들이다.》

《무엇하려 가댔니?》

《그건 대줄 수 없다. 죽어도 그것만은 말할 수 없다!…붉은 기'발 앞에서 맹세한 아동단 서약을 우리는 지킨다!》 룡남이는 원쑤의 낯짝을 똑바로 바라 보며 이렇게 웨쳤습니다.

원쑤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대장 놈은 가죽 장갑을 탁 차며 《총살!》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룡남이는 쓰러지는 명숙이를 부축하고 길청령 마루에 섰습니다.

룡남이의 눈앞에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어머님의 얼굴이, 선생님과 아동단원들의 얼굴이 차례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룡남이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백두산이 있는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김 일성 장군님! 우리는 아동단원답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룡남이는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 원쑤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룡남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칼바람 추운 겨울 물러 갈 때에
꽃피여 줄 붉은 바람 일어 났도다…
삼천리 금수 강산 조선 땅에는
아름다운 무궁화 활짝 피였다

명숙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는 길청령 마루에서 먼 하늘'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그들의 노래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목청을 다하여 최후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김 일성…장군! 만세!》 그들은 눈보라 사나운 길청령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도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강 룡남, 박 명숙 동무들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으나 그들의 붉은 혁명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맥박치고 있습니다.

(끝)

김 준규

사진 촬영 리 종록

독자들은 잡지 《소년단》 1961년 12 호에서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가하여 국기 훈장 제 2급을 수여 받은 황남도 해주시 연하 중학교 중등반 신 인도 동무의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에 그 후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어머니를 도와 화목하고 의좋게 생활하며 공부하는 10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의좋고 화목하게

꽃 테두리 속에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화를 정히 모신 아담한 방안이 인도네 학습실이다. 이 방안에 들어 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과표와 나란이 붙은 경쟁 도표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신 명자, 신 인덕, 신 인도, 신 숙자, 신 인천, 신 숙희, 신 인수, 신 인걸…

서로 다정스레 어깨를 겨루듯 올라 간 경쟁 도표의 붉은 선은 학교와 가정과 마을에서 인도네 형제들이 얼마나 공부 잘 하고 의좋고 규률 있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1961년 11월,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가하셨던 어머니가 앞가슴에 국기 훈장 제 2 급을 빛내이며 돌아 오신 날이였다.

《김 일성 원수님은 가정에서 잘 교양된 사람이래야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시였단다…》 형제들은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르고 대회에서 하신 원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새겨 들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그들의 생활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그 전 같으면 어머니가 깨워서야 일어나군 하던 인천이도 제일 먼저 조기 체조에 뛰여 나왔다.

《하나, 둘, 셋…》 언제나 힘찬 인도네 가족들의 조기 체조 시간은 보람찬 그 날의 첫 일과인 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형님, 누나들은 여느 때처럼 집안과 앞마당, 뒤뜰 등 제각기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염소, 닭, 돼지 등 가축에게 여물을 주기도 하였다.

명자 누나는 돼지를 맡아 기르고 있으면서도 아침이면 어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에 바빴다.

염소를 맡은 인덕이, 닭을 맡은 숙자, 토끼를 맡은 인도…형제들은 저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재꺽재꺽 해 놓고 서로 도와 나선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염소 3 마리, 돼지 9 마리, 닭 15 마리, (계란 500 알) 개 2 마리를 길렀다. 토끼만 해도 80 마리를 길러 나라에 수매시키고 동무들에게 나누어 준 토끼새끼도 많다. 마당 한쪽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여름 내 잘 가꾸어 18 Kg의 포도를 땄다.

맡은 일이 끝나면 형제들은 곧 학교에 가기 전에 학습실에 모여 아침 공부를 한다. 이 때 유치원에 다니는 인수와 인걸이는 갓난애기 선자를 데리고 논다.

어머니는 명자 누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학습실에서 들려 오는 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대견한 마음으로 들으신다. 이들이 이처럼 근심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 놓고 하신다.

리 탁아소 소장에 녀맹 위원장, 학부형회 위원장, 때로는 산파…어머니는 이 많은 일을 훌륭히 해 나가시는 것이다.

명자 누나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 오면 늘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저녁 식사를 지어 놓군 한다. 이럴 때면 이들 형제들의 움직임은 아주 재미 있다.

명자가 쌀을 이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물을 길어 온다, 석탄재를 파낸다, 석탄을 나른다…버쩍 끓는다. 저녁 식사를 다 지어 놓고는 명자 누나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 추며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린다. 이런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지 모른다.

일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 오시면 형제들은 모두 마당에 주른히 나가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인도네 형제들은 자기들이 의논하여 만든 일과표 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마음으로 움직인다.

방과 후 중등반과 인민반에 다니는 형제들이 반실에서 돌아 온 후에도 이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는다.

오롱조롱 모여 앉아 그 날 학습에서 모를 문제들을 해주 사범 대학에 다니는 청자 누나에게 물어 풀기도 하고 고등 의학 학교에 다니는 명자 누나에게 물어 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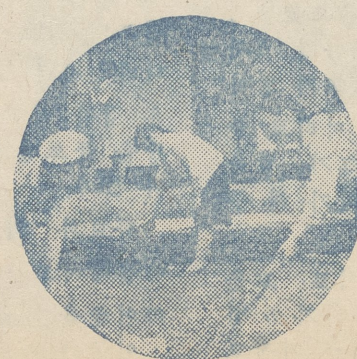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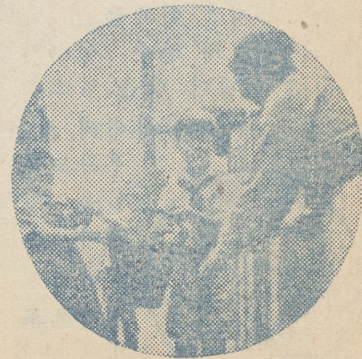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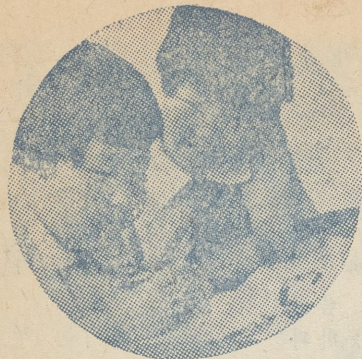
그 다음은 회상기 학습 차례다. 회상기 학습은 형제들이 날마다 골고루 나누어 연구하여 내놓는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생각과 결의를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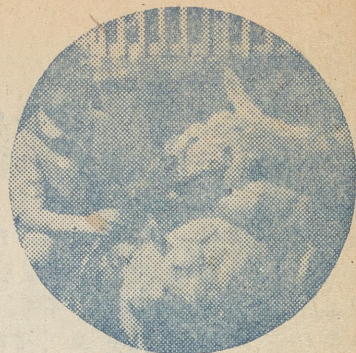
끝맺는 말은 어머니가 하시기도 하고 청자 누나가 하기도 한다.

형제들은 이렇게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혁명 정신을 배우며 마음을 더욱 붉게 다져 나간다.

잘 시간이 되면 언제나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들의 손과 발을 씻어 주고 동생들의 옷과 붉은 넥타이를 개여 놓고 잔다. 아침이면 형제들끼리 거울 앞에서 붉은 넥타이를 바로 매 주고 옷주름을 곱게 잡아 준다. 이럴 때면 마치 어느 분단의 반 동무들과도 같다.

이들이 아침에 서로 손목을 잡고 학교로, 유치원으로 갈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상 체조

아침 청소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숙자의 학습 방조

《손톱도 곱게 깍자요.》

인도가 키우는 염소

《정말 의좋은 연양리의 10 형제거든.》

《저러니 어머니가 훈장을 탔지.》라고…

소문 난 10 형제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10 형제는 학교에 가서도 우등, 최우등생으로 공부 잘 하고 소년단 생활에 모범이며 동무를 사랑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항상 아직 동무들이 학교에 나오기 전 이른 아침에 학교에 나가 교실 청소도 하고 운동장에 널린 검불을 줏기도 하고 꽃밭에 물을 주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과목 공부도 다 잘 하지만 동물과 식물 과목은 더 잘 한다. 집에서 많은 가축들과 식물을 기르고 가꾸면서 배운 지식을 넓히며 새로운 지식을 얻기 때문이다. 청자 누나는 동생들의 훌륭한 동물, 식물 선생님이였다.

한때 산수 성적이 뒤떨어졌던 숙자가 5 점을 받게 되기까지는 이들 형제들의 힘이 컸었다. 인덕 형님이 숙자의 공부를 맡아 도왔지만 형제들은 한마음으로 격정하며 숙자의 산수 성적이 좋아질 때까지 인덕 형님이 맡은 염소를 인도가 맡아 돌보았고 숙자가 아침에 맑은 머리로 공부하도록 그가 맡은 일을 인선이가 해 주었다.

이렇게 서로 도운 보람으로 숙자가 5 점 받은 시험지를 가지고 온 날 저녁 총화 때는 경쟁 도표에 붉은 선이 똑 같이 가지런히 올라 갔다.

형제들은 동생들이 분단과 반에서 맡은 일도 잘 도와 준다.

명자 누나는 자주 동생들의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고 오는데 총화 때마다 분단에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 보군 한다. 맡은 분공을 힘들어 하면 형제들과 의논하여 제때에 훌륭히 해 내도록 도와 준다.

지난 봄 어느 날에는 학교 옆 개울'가에 형제들이 다 나가 수양버들,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청자 누나는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마다 나무 심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 주었다. 이것은 반장인 인도가 분단 위원회에서 분공 받은 것이였다. 이 날 인도네 반 동무들은 분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 학년도가 되면서 인도는 분단 위원으로 선거되였고 숙자는 반장으로 되였다.

인도네 10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해주 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방송 야회 때마다 인도네 가족 써클이 나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당의 품'속에서 행복한 인도네 온 집안 식구의 합창과 이들 형제들의 중창을 들으면 누구나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학교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을에서도 인사성 밝고 웃어른들과 마을 아이들을 친부모, 친동생처럼 사랑한다.

이들은 마을 어른들을 아침에 만나도 인사하고 점심 때나 저녁 때에 만나도 깍듯이 인사를 한다.

한 번은 인도가 학교에서 돌아 오는데 인선이가 이웃에 사는 싸리'골집 할아버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는 것을 보았다.

인도는 다음 날 아침부터 인선이와 함께 싸리'골집을 에돌아 학교에 다니였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만나면 제가 먼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차렸다.

첫날 아침엔 멍하니 서서 보던 동생 인선이도 그 다음 날부터는 형을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인도네 동생들은 언제나 형님, 누나들이 하는 대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도는 그 날 저녁 총화 때 인선이를 칭찬해 주고 붉은 선을 높이 올려 주었다.

연양리 마을 아이들은 인도네 형제들을 보면 멀리에서부터 《형!》, 《누나!》 하며 따라 온다. 그것은 인도네 형제들이 마을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코를 씻어 주며 옷매무시를 돌봐 주는 등으로 친동생처럼 사랑해 주기 때문이다.

《저 애들은 정말 어머니를 꼭 닮았다니까, 공부도 잘 하고 어머니처럼 부지런하고 례절 바르고…》

《그러기에 모두 〈해주의 10 형제〉라고 부르지 않수.》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례절 바른 인도네 형제들을 보고 주고 받는 말이다.

이 행복을 지키자!

이들 10 형제의 어머니는 기쁘고 행복할 때마다 어린 시절의 피눈물겨운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려 주신다.

인도네 어머니는 가난한 농사'군네 막내딸로 태여났다. 그 땐 살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4 남매 중 막내딸로 태여난 어머니를 인도의 외할머니는 애 없는 집에 가져다 주자고까지 했었다는 것이다. 자기의 귀여운 아들딸도 사랑스럽게 키우지 못 하는 것이 그 때의 로동자, 농민들이였다. 그러나 오늘 인도네 형제들은 사회주의 조국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 제도가 얼마나 좋고 당과 수상님의 은덕이 얼마나 큰가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형제들은 언제나 마음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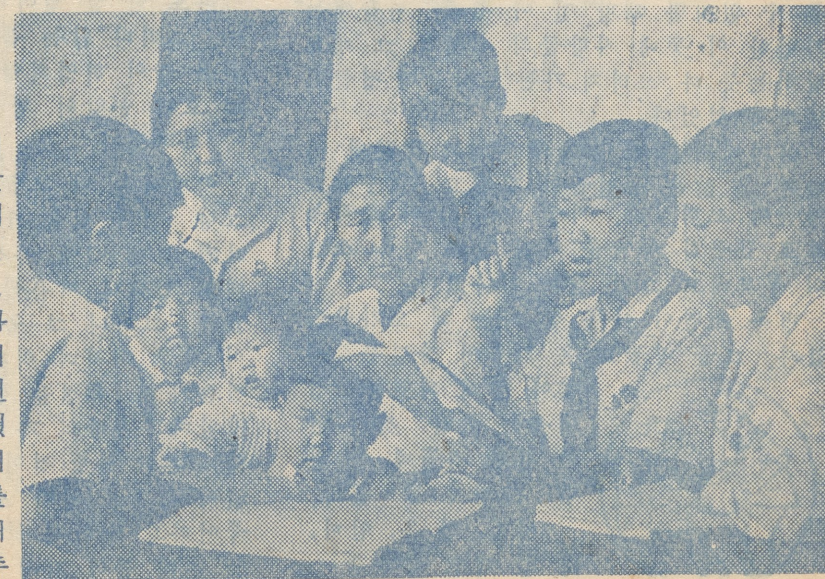
《이 행복을 지키자!》라고.

그러기에 지난 봄에 인민 군대에 입대한 인덕이는 어머니에게 보내 온 편지에 이렇게 썼다.

《어머니, 기뻐하여 주십시오. 저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주신 총을 잡았습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혁명 정신이 스며 있는 이 총!

저는 이 총을 잡고 그 분들처럼 혁명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미제 원쑤 놈들을 우리 조국 땅에서 몰아 내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 날까지 이 총을 놓지 않고 우리의 행복, 삼천만 조선 인민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인덕이 하나만의 마음이겠는가! 이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 있는 이들 《해주의 10 형제》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결의이다.

회상기 학습을 하고 있는 10 형제

조 병 권

리 경혁이는 강원도 안변군 풍화 중학교 중등반 1 학년생이다. 그는 학습과 생활에서 부러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모들이 어떤 고난의 력사를 걸어 왔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경혁에게 가슴에 서리고 맺힌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

경혁의 아버지 리 병옥은 지금 살고 있는 천삼 마을에서 태여났다. 지금은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환하게 줄 지어 섰고 학교, 진료소, 상점,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들이 들어 앉아 옛날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지만 해방 전 이 천삼 마을에는 가난한 이 동네 사람들의 신세를 그 대로 말하는듯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집들이 널려져 있었다.

여기에서 지주 놈들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 수 많은 농민들이 헐벗고 굶주렸고 병들어 쓰러졌다. 지주 리가 놈의 소작농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 오는 병옥 소년의 부모네도 그런 집의 하나였다.

병옥 소년이 아홉 살 나는 해 초가을이였다. 그를 내놓고 온 가족이 장질부사에 앓아 눕게 되였다. 집에서는 끓일 것이 없어 벌써 사흘째 불 한번 지피지 못 했다.

《엄마, 밥 응,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병옥 소년의 동생인 네 살 난 병욱이가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에게 못 견디게 졸라댔다.

《밥이 어디 있니? 내 있다가 저녁에 지어 줄라 응.》

입술이 마르고 배가 등에 붙은 병욱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괴로왔다.

부석부석 부은 어머니의 두 눈에서 흘러 내리는 눈물이 뺨을 스치고 떨어져 베개'잇을 적셨다.

어머니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앉았다. 근처 집에 찾아 가 먹다 남은 찬밥이라도 한 술 빌어다 주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앓는 몸에 여러 끼 굶기까지 해서 속이 허영허영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해 오며 눈앞이 갑자기 깜해져 도로 자리에 쓰러졌다.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는 병옥 소년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주 리가 놈네 집에 가서 무슨 일이건 시키는 대로 할테니 미음쌀 한 되박만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그 놈은 일도 못 하는 것들이 자꾸 가져다 먹기만 하면 무엇으로 갚겠는가고 욕설을 할 뿐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짐승들에게서 더 바랄 것이라군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 오던 병옥 소년은 돌피죽이라도 쑤어서 앓는 가족들을 구환하려고 논에 들어 가서 돌피 이삭을 뽑기 시작했다.

《거 누구냐! 썩 나오지 못 할가!》

누가 등 뒤에서 꽥 소래기를 지르는 바람에 병옥 소년은 흠칠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나왔는지 논'두렁'길 우에는 지주 놈이 서슬이 덩덩해서 뻔히 서 있었다.

《이 놈아! 정신이 있어? 남의 논에 들어 가서 벼를 뭉개 놓으면 어떻걸 작정이야…엉》

지주 놈은 눈알을 부라리며 논에서 나오는 병옥 소년의 귀를 대뜸 잡아 비틀었다. 그리고는 돌피 이삭을 와락 빼앗아서 개울에 내던졌다.

모든 설음이 일시에 북받쳐 올라 병옥 소년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앓아 누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약은 고사하고 돌피죽마저 대접할 수 없는 것이 슬프고 쓰리고 원통하였다.

병옥 소년의 집에는 더 무섭고 큰 불행이 닥쳐 왔다.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아버지는 다른 병까지 겹쳐서 오래 동안 자리에서 일어 날 수 없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이듬해 봄에 지주 놈은 병옥 소년의 부모들이 부치던 소작땅마저 떼고 그들을 자기의 농막에서 내쫓았다. 병옥이네는 남의 집 웃방을 한 간 얻어 가지고 나가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살아 가야 했다.

설한풍 휘몰아치는 겨울이 다가 왔다. 아버지가 품팔이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 가던 병옥이네는 겨울 지낼 일이 막막했다. 그런데 마침 일본 놈 변놓이'군 《아베》란 놈이 말 한 필을 빌려 주면서 원산에서 물'고기를 사 줄터이니 평강에 가서 곡식과 바꾸어다가 팔아서 리 나는 돈을 나누어 먹자는 것이였다.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하던 아버지는 이 일을 몹시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놈은 매번 옥수수 몇 되박씩을 주고는 리 난 것은 저 혼자 다 먹었다.

세 번째로 물'고기를 해 싣고 세포로 팔려 갔는데 갑자기 말이 병에 걸리게 되였다. 아버지는 별의별 방법을 다 해 말을 살려 보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구해 내지 못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베》란 놈은 거품을 물고 달려 와서 당장 말값 40 원을 내놓지 않으면 요정을 내겠다고 을러 멨다. 아버지는 년말까지 꼭 갚아 주겠노라고 사정했지만 그 놈은 한 달 안으로 가져 오지 않으면 법에 넘기겠다고 호통을 쳤다.

아버지는 그 돈을 갚기 위해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삯'일을 했고 어머니도 삯빨래를 하고 삯방아를 찧었다. 병옥 소년도 형과 함께 벼'짚을 사다 밤을 새워 가면서 가마니를 짜서는 30 리'길인 원산에 지고 가서 팔았다. 그리하여 겨우 18 원을 장만해다 먼저 물어 주었다.

섣달에 접어 들자 빚받이'군들은 돌쩌귀에 불이 나게 드나들었다.

설음과 원한으로 사무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섣달 그믐날이였다. 돈 있고 권세 있는 놈들은 작은 명절이라고 돼지를 잡는다, 떡을 친다, 엿을 다린다, 지짐을 지진다 야단법석이였다. 그러나 병옥 소년의 집에는 죽물 우릴 한 알의 낟알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변놓이들의 단련을 받다 못해 어디로 몸을 감추고 집에 들어 오지도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혼자서 시달림을 받았다.

아침에는 쌀 장사가 달려 들어 리자가

불어 곱절로 불어난 쌀값을 내라고 법석을 해 댔고 낮에는 봄에 병옥이가 앓을 때 침 몇대 맞고 풀뿌리 몇 포기 가져다 먹은 약값을 내라고 의원이 달려 들었다.

이 번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가는 무렵에 《아베》란 놈이 자기의 앞잡이들을 앞세우고 소달구지를 끌고 왔다. 그 놈은 마당에 들어 서자'바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을려 댔다.

《죽은 말값 물지 못한 것이 44 원이다. 당장 물지 않으면 살림을 들어 간다. 물겠는가? 안 물겠는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네?! 44 원이라구요? 웬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40원 드릴 데서 전번에 18 원이야 갚지 않았습니까?》

《제때에 돈을 물지 못한 건 생각치 않는가, 리자가 붙었단 말이야!》

참으로 생사람의 눈알을 빼먹을 도적 놈이였다. 이 날 《아베》란 놈은 빚 대신에 가장집물을 모조리 털어 실었다. 밥 가마며 이불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달구지에 쳐 실었다. 그리고는 모두 해야 18 원어치 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26 원을 빨리 가져다 물지 않으면 또 법에 넘긴다고 을러 댔다.

《나으리, 며칠만 참아 주시우. 이렇게 다 실어 가면 이 많은 식구가 어떻게 삽니까? 제발 이 번만 용서해 주. 내 뼈를 갈아서라도 꼭 갚으리다…》

어머니는 사정했다. 그러나 《아베》란 놈은 어머니를 사정 없이 발'길로 차 넘기고 달구지를 몰고 갔다.

《돈! 돈이 무엇이냐, 돈 있는 놈은 모두 같은 놈들이구나…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언제 뒤집힐고… 아이구 가슴이야…》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구는 지주, 자본가 놈의 세상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들 무엇하랴! 경찰도 법도 모두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기만 하는 세상에서.

그 후 경찰들이 뻔질나게 달려 들어서는 《아베》의 남은 돈을 물지 않으면 잡아 가두겠다고 못 살게 굴었다. 하는 수 없이 병옥의 형은 지주 오가 놈에게 한 해 동안 머슴을 살아 주기로 하고 20 원을 받아 왔고 병옥 소년도 얼마간의 돈을 받고 지주 안가 놈네 소몰이'군으로 끌려 갔다. 그는 소꼴 베러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면서도 짚신마저 없어서 맨발로 다녔다.

지주와 《아베》 놈의 성화에 숨어 다니던 아버지는 일본 혹가이도의 어느 탄광 자본가 놈에게 몸을 팔고 집에도 들리지 못 한 채 배에 실려 끌려 갔다.

아버지는 탄갱이 무너져 3 년 후에 병신이 되여 집에 돌아 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였다. 온 누리에 차고 넘친 당의 찬연한 해'빛 아래서 경혁이의 아버지에게도 희망에 찬 새 생활이 펼쳐졌다. 그는 나라에서 논 2,600 평과 밭 800 평을 분여 받았다. 그는 40 세에 비로소 제 나라 글을 배우게 되였다. 지난날 천삼 마을에서 머슴'군이던 그는 해방 후 리 인민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이리하여 그는 어엿한 땅의 주인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경혁이의 아버지는 지금은 협동 농장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당을 위해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

× ×

《너는 오늘의 생활이 행복할수록 아버지가 겪은 그 몸서리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원쑤가 어떤 놈들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다시는 지주, 자본가 놈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세상이 돌아오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당과 우리 조국,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경혁이의 두 눈은 원쑤 놈에 대한 증오로 빛났다.

사라진 그림자

(3 회)

박 응 호 그림 양 재 혁

3. 새로운 사건

그 날 방과 후였다.

명길이네 분단에서는 계획한 대로 협동 농장 옥수수 밭 김 매기 협조 작업에 나갔다. 두엄을 담뿍 낸 옥수수는 키가 넘게 자라 올라 보기만 해도 탐스러웠다. 어떤 대에는 지게'다리 같은 옥수수가 세 개씩 매달린 것도 있었다.

지난 초여름 명길이랑 분단 아이들은 마을 련'못이며 논판을 다 훑어 개구리 사냥을 하여 그것들을 옥수수 포기마다에 묻었였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옥수수는 하루가 다르게 소리치며 자라 올랐다. 자기들의 적은 로력이나마 깃든 이 협동 농장의 곡식들을 바라 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교에 오 갈 때나 짬이 날 때면 서로 풀 한 포기라도 더 뽑으려고 앞을 다투었다. 이러는 사이에 아이들 가슴마다에는 《내 것》이란 생각이 점차 없어지고 그 대신 《우리 것》이란 새로운 생각이 싹터 나기 시작하였고 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 갔다. 협동 농장의 것이자 곧 내 것이요, 내 것이자 곧 농장의 것이란 이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생각은 어른들 뿐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까지 미쳐 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꽃피워 나갔다.

이 날도 아이들은 옥수수 포기 하나하나에 사랑을 품고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다.

언덕배기 옥수수 밭 한 뙈기를 거의 다 매였을 무렵이였다. 마을로 물 길러 갔던 경팔이가 멀리서부터 무언가 소리치며 달려 올라 왔다. 원래 새 소식 잘 알아 내는 선수인 경팔이여서 저렇게 떠드는 것으로 보아 또 무슨 색다른 소식이 있는 게 분명하였다.

아이들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껑충껑충 치달아 올라 오는 경팔이를 지켜 보았다.

《크 큰'일 났다!》

경팔이는 어찌도 숨이 찼던지 마른 침을 꿀떡 삼키며 그 큰 눈을 꿈벅거렸다.

일시에 아이들이 오구구 모여 들었다.

《지 지금 축사에선 큰'일이 생겼어! 소가 죽었어!》

《뭐?》

아이들이 일시에 놀랜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참으로 뜻밖의 소식이였다. 농장이 갓 조직된 형편에서 소는 둘도 없는 농장의 귀중한 밑천의 하나였던 것이다.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던 소가 갑자기 죽었다니 아이들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하던 것도 다 집어 던지고 우루루 축사 쪽으로 몰려 갔다.

그들이 축사로 막 뛰여 갔을 때 거게는 벌써 관리 위원회 간부들이며 농장원들이 웅기중기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명길이가 사람들을 헤집고 축사 출입문 가까이까지 뚫고 들어 갔다. 거게는 어

머니도 와 계셨다.

한 쪽 구석에서 흰 위생복을 입은 한 아저씨가 죽어 넘어진 소를 해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긴장한 얼굴로 수의사의 거동을 지켜 보고 있었다. 명길이는 가슴에서 방망이질 하는 것을 느꼈다. 그처럼 힘이 세고 일 잘 하던 얼룩이 소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를 몹시 흥분케 하였다. 눈을 흡뜨고 넘어져 있는 소를 보니 가엾은 생각이 났다. 문득 협동 농장이 갓 조직되였을 때 이 얼룩이 소가 개인 집 외양'간을 나와 농장 축사로 옮겨 오던 날 광경이 선히 머리에 떠올랐다. 그 때 명길이랑 경팔이, 문일이들은 하두 기쁘고 대견스러워 축사까지 소를 바래 주기까지 했었다. 그 때로부터 그들은 맛 있는 꼴을 베다가는 소에게 먹였고 오래 동안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삭임질하는 얼룩이 소를 재미 나서 바라 보군 하였다.

언젠가 명길이는 소 때문에 한 농장원과 다툰 일까지 있었다. 그 농장원은 박 풍삼이란 사람이였는데 원래 농장 물건에 대해 사랑이 없는 터여서 항상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는 사람이였다. 그 사람은 개인농 때 소도 두 짝이나 먹였고 살림도 괜찮은 편이여서 농장에 드는 것도 맨 나중에 들었다. 그 날 명길이가 학교에서 돌아 오고 있는데 박 풍삼이가 진창'길에 한쪽 바퀴가 빠진 달구지를 끌어 내노라 마구다지로 소를 갈겨 대고 있었다. 회초리가 다 동강이 나자 박 풍삼은 길'가 한 옆에 나뒹구는 몽둥이를 넌떡 집어 쥐고 소 엉뎅짝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가엾은 소는 눈을 흡뜨며 버드렁거렸다. 이것을 본 명길이는 정신 없이 달려 들어 박 풍삼의 몽둥이 쥔 손에 매달렸다

《왜 소를 때려요…》

명길이는 울'상이되여 악을 썼다. 박 풍삼은 너무도 명길이가 야단 쓰는 바람에 슬며시 몽둥이를 내리웠다.

이 날 명길이는 소를 돕기 위해 새로 사 신은 운동화도 미처 생각할 사이 없이 진창'길에 들어 서서 작은 어깨를 들이밀어 달구지를 떠밀어 내고야 말았다.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소가 죽었으니 명길이로서는 슬프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수의사가 해부를 하는 동안 모여 선 농장원들은 제멋대로 떠들어 대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독초를 먹여 죽었다고 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병에 걸린 게 틀림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아저씨는 너무 부려 먹어 기운이 빠져 죽었다고들 했다.

그러나 명길이는 그 모든 이야기가 미덥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꼴을 쓰던 소가 아닌가. 더구나 덕보 할아버지가 소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살이 피둥피둥 쪄 가던 소가 아닌가. 더우기 이상한 것은 죽은 소가 신통히도 제일 힘센 억대우가 아닌가.

명길이의 머리에는 아직 또렷하지는 않으나 그 어떤 의문이 뱅글뱅글 돌아 가기 시작하였다.

어느 사이엔가 명길이 옆에 경팔이와 문일이가 다가 섰다. 그들은 모두 눈물이 글성해 죽은 소를 바라 보고 있었다. 문일이는 슬픈 얼굴을 하고 침도 뱉지 않았다.

반 시간이 지나서야 해부가 끝났다. 수의사는 소 위를 검사하고 있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위를 헤집던 수의사가 흠칫하고 움직이던 손을 멈추었다. 모여 섰던 사람들도 오싹 긴장해졌다.

《못을 먹였소!》

수의사가 웅굴은 소리로 말하며 세 네 개의 작은 못을 끄집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차츰 분노의 웨침으로 변하였다. 누군가 소 관리공인 덕보 할아버지를 향하여 소리쳤다.

《령감! 똑똑히 말해 보우…》

덕보 할아버지는 괴죄죄한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안절부절 못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시에 덕보 할아버지를 쏘아 보기 시작하였다. 덕보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이가 빠져 오므라진 입만 애오라지 놀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소가 앓기 시작했나요?》

명길이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여드레 전부터우다!》

덕보 할아버지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며 원통한 음성으로 대꾸하였다.

《여물에 못이 든 것을 모르셨나요?》

어머니가 다시 좀 엄하게 물었다.

《알고 먹였다면 생벼락을 맞겠수다. 어이구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수…》

덕보 할아버지는 너무도 억해나서 가슴을 텅텅 치며 넉두리를 하였다.

명길이는 할아버지를 꽉 믿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

덕보 할아버지는 원래 이 고장 김 찬봉 지주네 집에서 삼 대를 내려 오며 머슴을 산 할아버지였다. 전쟁 때 아들 형제를 전선에 보내고 열심히 후방에서 일해 온 부지런한 할아버지였다. 둘째 아들이 전사한 후 할아버지는 제대된 맏아들과 함께 오늘 이 때까지 농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 협동 농장이 조직된 때만 해도 할아버지는 맨 선참으로 들었고 농장에 든 후로는 밤'잠을 자지 않고 농장 일을 돌보았다.

명길이는 언젠가 망아지 한 마리가 앓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그 놈을 자기 집에 안고 가서 며칠을 아래'목에 눕혀 간호하던 것을 본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할아버지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관리 위원장이 모여 선 사람들을 해산 시키고 간부들만 데리고 관리 위원회로 걸어 갔다.

명길이와 경팔, 문일이, 천룡이들은 사람들이 다 흩어진 텅 빈 축사에 그 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가엾이 죽어 넘어진 소를 바라 보고 있었다.

《개새끼! 어느 놈이 이런 것을 했어!》

경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뻔하지 뭐야! 그 놈들이지!》

문일이가 창백한 얼굴로 쏘아 붙이듯 말하였다. 어찌도 얼굴이 새하얀지 죽은 깨가 더욱 새까맣게 돋으라져 보였다.

천룡이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걷잡을 수 없는 초조와 불안에 찬 얼굴로 죽은 소를 바라 보고만 있었다.

《경팔아!》

명길이가 무슨 생각에선지 경팔이를 돌아 보았다.

《?!》

경팔이는 의아한 얼굴로 명길이를 쳐다 보았다.

《너희들이 도깨비를 봤다는 게 언제냐?》

《뭐? 도깨비?》

경팔이가 짐짓 놀라서 눈을 흡뜨며 되물었다.

《그게 며칠 전이야?》

아이들은 명길이가 왜 갑자기 도깨비 얘기를 꺼내는지 통 알 수가 없어 한참 그의 얼굴만 지켜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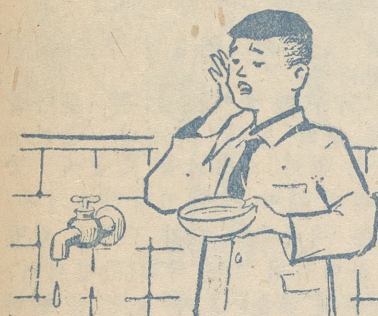
이윽고 문일이가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며 날'자를 세였다.

《바로 여드래

전이야!》
눈을 쪼푸리고 이 말을 듣던 명길이가 번쩍 눈을 떴다. 그의 두 눈이 빛나기 시작하였다.
《이건 틀림 없이 그 도깨비의 장난이야!》
명길이는 확신을 가지고 쨍쨍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
경팔이와 문일이들이 한꺼번에 소리쳤다. 천룡이도 눈을 크게 뜨며 명길이를 지켜 보았다.
《아니 너희들은 우리가 대풀 났다구 하지 않았니?》
경팔이가 볼부은 목소리로 흘끔 명길이를 바라 보았다.
명길이는 이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건 도깨비가 아니라 숨은 원쑤야!》
하고 똑똑히 찍어 말하였다.
이 말에 천룡이는 어째서인지 눈 둘 곳을 몰라 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 하였다.
명길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축사를 나왔다. 그들은 관리 위원회 앞을 흐르는 관개 수로 둑에 나란이 앉았다. 수로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 소리 내며 흘러 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말 없이 흘러 가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 보며 제각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애들아! 어머니가 그러는데 지금 원쑤 놈들은 우리 농장을 어떻거나 해쳐 보려고 날치고 있다는 거야!》
명길이가 아이들을 둘러 보며 말하였다.
《그 놈들이 어디 있다구?》
경팔이가 원쑤를 찾기라도 할듯 사방을 휘 살펴 보기까지 했다.
《넌 정말 맹초야! 그래 원쑤 놈들이 그냥 대낮에 나다닐 것 같애?》
문일이가 퉁망을 주었다.
경팔이는 발끈 성을 내며
《얘 얘! 지금이 어느 때라구 원쑤 놈들이 숨어 있단 말이야!》
하고 고집을 세웠다.
한동안 경팔이와 문일이들은 원쑤는 없다거니 있다거니 싱갱이를 하였다.
천룡이는 고개를 떨구고 앉은 채 풀대를 뽑아 질근질근 씹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비끼군 하였다.
한동안 경팔이와 문일이들의 신갱이를 듣고 앉았던 명길이가 말했다.
《원쑤는 아직두 우리 곁에 있다. 지주란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지!》
《뭐? 지주 놈들이?》
경팔이가 더욱 놀라며 되물었다.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놈들은 전쟁 때 사방에 흩어져서는 숨어서 때만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 놈들은 이름도 다 바꾸어 가지고 흉칙스런 짓들을 꾸민대.》
《너 지주 놈 봤니?》
문일이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명길이 곁에 바싹 다가 앉았다.
명길이는 빙그레 웃으며 《보진 못 했지만 어머니한데서 들었어! 정말 악독한 놈들이지! 언제 한 번 우리 어머니 애기 들어 봐!》 하고 아이들을 둘러 보았다.
한동안 아이들 사이에는 지주 놈들이 얼마나 간악한 놈들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벌어졌다. 경팔이와 문일이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었다. 그러나 천룡이만은 굳어진 얼굴로 명길이 말을 듣고 있었다.
한동안 지주 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나서 명길이는 무슨 생각에선지 아이들을 가까이 다가 앉게 하고 조용히 소곤거리기 시작하였다. 중대한 이야기인듯 경팔이와 문일이들의 얼굴도 긴장해지였다.
이 때 천룡이의 풀'대 문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꼬마 진료소

충치를 예방하자

아침 밥상에 마주 앉은 영수는 국그릇에 술을 댔다가 들지 못 하고 도로 내 놓았습니다. 따거운 국물이 입안에 들어 가자 오른 쪽 아래 어금'이가 막 아파나서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이 며칠째 그 어금'이에 찬 것이나 더운 것이 조금만 가 닿아도 아파나군 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괴로왔습니다.
영수는 이 날 수업을 마치고 꼬마 진료소에 들렸습니다. 꼬마 의사는 영수의 입안을 찬찬히 들여다 보더니 《이'발에 벌레가 먹는구나. 넌 이를 닦지 않는 모양이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부끄러워 빨개진 얼굴을 숙일 뿐 아무런 대구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병은 네가 이를 깨끗이 닦지 않기 때문에 생긴거야. 이는 석회질과 담백질로 이루어졌단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음식물 찌끼를 깨끗이 가셔 내지 않으면 그 찌끼가 썩어서 유산으로 된단다. 이 유산은 이의 석회질을 녹여 버린다. 그리고 음식물 찌끼가 썩어서 생겨난 세균들은 이의 담백질을 녹여 버리기 때문에 이에 구멍이 뚫린단다.》

꼬마 의사는 이렇게 영수에게 벌레 먹은 이가 어떻게 생겨 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넌 충치(벌레 먹은 이)를 오늘이야 발견했니?》
꼬마 의사는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그전부터 좀 까맣게 된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오늘이야 왔니?》
《아프지 않더구나. 그래서 난 일 없을줄 알았어.》
《넌 병을 길러 가지구 온 셈이구나. 충치는 저절로 낫는 일이 없단다. 충치가 생기면 곧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해. 처음에 법랑질이라고 하는 굳은 껍질만 녹았을 때는 아프지 않단다. 이 때 와서 치료를 받으면 이가 그렇게까지 상하지 않는단다. 그런데 넌 그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법랑질을 다 뚫고 그 속의 상하질까지 뚫러 놓아서 찬 것이나 더운 것이 조금만 가 닿아도 신경을 다쳐서 아픈거야. 이것을 치료 받지 않구 그 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엔 이뿌리까지 병들구 이가 박혀 있는 뼈짬에 고름'집이 생겨 이'몸이 부어오르면서 몹시 아프단다. 더 심하게 되면 골수염이나 뇌막염을 일으켜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단다.》

꼬마 의사의 말을 듣고 난 영수는 벌써 와서 치료를 받지 못 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꼬마 의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고 하면서 영수더러 아침 일어나서와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이를 닦군 하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를 닦을 때는 치솔을 좌우로만 문지르지 말고 아래우로 치솔질 하면서 안팎을 골고루 닦아서 이'새에 박힌 찌끼들을 가셔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는 입을 말끔히 가셔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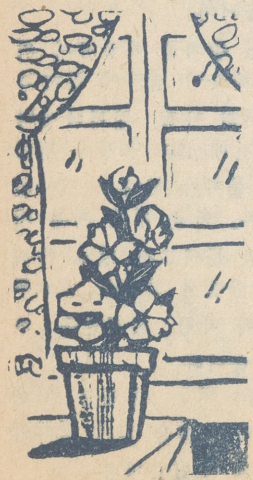
교육 과학 연구소 김 자원

동물이나 식물은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거나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이 꼭 같은 《음식물》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공기, 물, 땅 속의 여러 가지 물질로 살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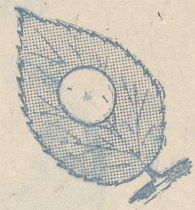
식물은 자기가 살아 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직접 먹지 못 하지만 그런 물질을 자기절로 만들 수 있답니다. 즉 식물은 동물들이 먹고 사는 물질과 비슷한 물질을 자신이 만들어 냅니다.

이 물질을 우리는 전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 때나, 식물의 어느 부분에서나 형성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전분은 해'빛을 받는 잎에서만 만들어 집니다.

때문에 전분을 만드는 데는 해'빛이 있어야 하고 그 해'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엽록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식물이 태양 빛이 쬐일 때 엽록소라는 푸른 색의 알맹이들을 만드는 데 이것이 식물의 푸른 색을 나타 내게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기른 콩나물이나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나 줄기는 해'빛을 볼 수 없어 엽록소를 만들지 못해 흰 색을 띄게 되며 아주 연약하답니다. 엽록소가 있는 식물은 종자가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다 없어지면 그만 죽고 만답니다.

정말 식물이 해'빛을 보지 못하면 노랗게 되는지 집에서 실험을 해 봅시다.

마늘이나 파, 콩이나 옥수수를 두 화분에 심어서 하나는 창문'가나 따뜻한 양지쪽 해가 잘 드는 곳에 두고 다른 화분은 부엌이나 방안의 어두운 곳에 두어 빛을 보지 못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싹이 나오는 것, 자라나는 것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자세히 관찰하여 보십시오. 그들의 차이점들을 찾아 내고 그 원인을 배운 지식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전분을 만드는 데는 탄산 가스와 물이 있어야 합니다.

식물들은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할 때 공기 중에 내 보내는 탄산 가스와 뿌리에서 빨아 올린 수분에다 태양 빛을 받아서 전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자 선생님들의 연구에 의하면 식물은 1 m^2의 잎에서 하루 동안에 약 0.5~1.5 g의 전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이 났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식물이 아주 많은 나라인데 이 모든 식물이 매일 이렇게 전분을 만들어 낸다면 잎은 점점 전분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며 산과 들은 전분으로 뒤덮이게 되겠으니까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자연계는 벌써 이 걱정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 해가 나는 낮에만 전분이 생기게 하고 해만 지면 벌써 전분을 만들던 작업을 완전히 중지한답니다.

그리고는 낮에 만들어 놓은 전분을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 필요한 부분에로 골고루 운반해 갑니다.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전분이 식물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에만 전분을 만든다는 것을 간단한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잘 쪼이는 12시~1시 경에 나팔꽃 같은 넙적한 잎을 뜯어서 알콜에 담그고 약간 끓이면 알콜은 아름다운 록색이 되는데 이것은 엽록소가 알콜에 녹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잎은 흰 색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흰 잎을 접시에 담고 연한 요드 액을 떨구어 보십시오. 흰 잎에 청자색의 점들이 나타나는 데 이것은 전분이 요드와 만나면 청자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꼭 같은 방법으로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잎을 뜯어서 실험해 보십시오. 그 때에는 청자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드를 많이 두어도 색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여기에 전분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식물은 빛을 많이 받을수록 전분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잎들은 태양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쟁》합니다.

동무들, 자연계에서 자라는 식물의 잎들의 배치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서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엇바꾸어 배치되여 있답니다. 바로 이것은 식물이 생활하는 데 해'빛이 절실히 요구된다는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재미 있는 실험을 화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창문'가에다 놓은 화분의 식물들이 밝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들이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의 잎이 전분을 만드는 것은 식물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들의 생활에 큰 의의를 가진답니다.

식물들이 전분을 만들 때에는 산소가 나옵니다. 식물들은 이를 공기 중에 내 보냅니다. 산소는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구상에 식물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생물은 숨을 쉴 수 없을 것이며 곧 다 죽어 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음식물도 없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식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물들을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합니다. 식물이 살아 가는 데는 전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물들에 비료를 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식물은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잘 자라지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식물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실험하고 관찰들을 해야 합니다.

례절에 대한 이야기

(1 회)

차 종 진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늙은이, 젊은이, 아이, 어른, 남자, 녀자 할 것 없이 지켜야 할 례절과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선조들이 살아 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례절과 도덕 품성이 전해지고 있으며 동방에서도 례절이 바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거리 또는 공동 집합 장소에서 지켜야 할 례절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로 합시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례절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가정에서 부모, 형님, 누나 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을 항상 존경하며 동생들을 사랑하며 도와 주는 것은 소년단원, 우리들이 일상 지켜야 할 례절입니다.

매일 아침 자기가 자고 난 침구를 개 였으며 힘에 알맞게 부모님들의 일'손을 도와 드리는 것도 례절의 하나입니다.

식사할 때에도 례절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식사할 때에는 어른들이 밥술을 든 다음에 자기도 술을 들어야 합니다.

어른들보다 먼저 식사를 하게 되는 때라든가 자기가 먼저 끝나고 나갈 때 등에도 《먼저 먹겠습니다》또는《전 먼저 가보겠습니다.》등 인사를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떠들거나 쩝쩝 소리를 내거나 데거덕데거덕 그릇 소리를 내는 것은 실례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기가 어지럽힌 상을 깨끗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에게서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학교에서 돌아 오면 《학교에 다녀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집에서 어디 나갈 때에는 의모를 단정히 하며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돌아 올 시간을 알려 드리고 나가는 것이 례절 바른 행동입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는 공손히 인사하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묻는 말에 대하여서는 똑똑하고도 공손하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만일 동무들이 자기를 찾아 왔을 경우에는 자기 동무가 어떤 일로 찾아 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손님과 이야기 할 때 큰 소리로 떠들면 이야기에 방해가 되며 묻지도 않는 말을 참견하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방안에서 동무들과 이야기 하거나 공부할 때 손님이 자기 방에 들어 오시면 인사를 하고 부모님들과 손님에게 량해를 얻은 후 자기들이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 례절 바른 일인 것입니다. 될수만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에 가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손님들에게 방을 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소년단원들과 이야기할 목적으로 방에 들어 오셨을 경우에는 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손히 대답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손님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는 우선 밖에서 자기 의모가 단정한가를 살피고 출입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주인을 찾은 다음 《들어 와도 좋습니까?》라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찾아 온 용무를 간단히 이야기 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동무이거나 또는 동생들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을 찾아 인사한 후 자기가 온 일을 이야기하고 동무들과 같이 자기가 온 일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 방안을 힐끔힐끔 살피거나 허락 없이 부모님들의 책상에서 책을 뽑아 뒤적거리거나 함부로 어른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실례입니다.

저녁에 잘 때에는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를 닦고 발을 씻고 침구를 단정히 펴고 잠'자리에 누워야 합니다.

어른들과 딴 방에 헤어져 잘 때에는 반드시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 후 자기 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잠을 잘 때에는 몸을 바로 가지고 자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이를 갈거나 잠꼬대를 하는 것도 남에게 실례입니다.

특히 손님으로 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자거나 또는 야영 생활에서 많은 동무들과 같이 자는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잠자기 전에 너무 흥분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 생활에서 지나친 장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집에서나 또는 손님으로 가서 웃사람들보다 먼저 잘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먼저 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이야기와 기막힌 사연

같은 로동자의 가정이라 하지만 공화국 북반부 로동자들의 생활과 남반부 로동자들의 생활은 실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공화국 북반부의 어느 한 평범한 우편 통신원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김응세 동무네 행복한 가정 이야기와 남반부의 어느 우체국 집배원(통신원을 말함)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선옥이라는 녀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동무는 다 같이 우편 통신원인 아버지를 모셨는데 응세 동무가 그처럼 기쁨과 행복을 자랑하고 있을 때 한 나라 한 땅에서 선옥이는 어찌하여 설음에 겨워 울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편 통신원입니다. 아버지는 우편 통신원처럼 좋은 일은 없다고 늘 자랑삼아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면 어디 가나 사람들이 기다리며 반겨 맞아 주기 때문이랍니다.

편지와 신문을 그득 담은 큰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아빠트 마을에 들어 서기가 바쁘게 사람들은 우! 모여 와 아버지를 둘러 싼답니다.

사회주의 건설장에서와 경치 좋은 휴양소에 휴양간 아들에게서 온 소식을 받아 든 아버지, 어머니, 소년단 야영소에 간 귀여운 어린 손녀의 소식을 받아 든 할아버지, 할머니, 조국의 초소에 굳건히 서 있는 남편의 소식을 받아 든 아주머니, 저저마다 손에 손에 기쁜 소식을 받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도 저절로 기뻐진대요.

아버지는 왜정 때도 우편 배달을 하셨는데 그 때는 우편 배달처럼 괴로운 일은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지요.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봐라! 왜정 땐 배달부라고 하면 정말 괴로운 직업이였단다. 어디 그 때야 나라 없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었겠니, 전하는 소식이라는 것은 슬프고 기막힌 사연 뿐이였단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단다. 내가 배달을 나갔는데 한 어머니가 편지를 받아 봉투를 뜯더구나. 그러더니만 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니, 알고 보니 왜놈들에게 끌려 일본 북해도 어느 탄광으로 간 아들이 갱이 무너져 죽었다는 기막힌 사연이 아니였겠니, 그 땐 이런 일이 드문했단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일은 옛'이야기로 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정 때나 또는 오늘의 남조선 같은 데서는 통신원의 자식들은 학교 문턱에도 가 볼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형님과 두 누님이 벌써 중학교를 졸업했고 나도 그리고 내 동생도 나라에서 철 따라 내주는 교복을 타 입으며 근심 걱정을 모르고 중학교와 인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정 때 같으면 통신원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꿈엔들 이런 행복을 누려 봤겠어요.

아버지는 늘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당과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아버지는 더 많이 일하고 우리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 해야 한다고 하시지요.

평양 동흥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김 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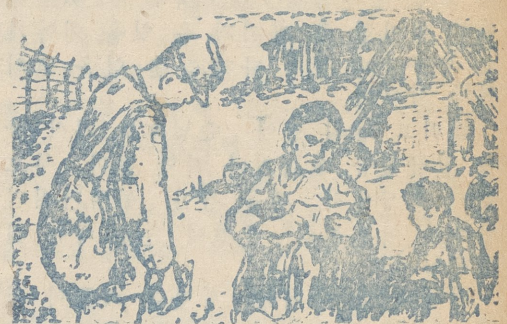
기막힌 광고

경상북도 안동 중학교 3 학년 졸업생인 선옥이는 지금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옥이는 《국민 학교》 때부터 줄곧 최우등생으로 진급한 아이랍니다.

그러나 그는 상급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저녁 끼니가 없어 굶는 형편에서 어떻게 엄청난 《입학금》을 물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안동 우편국 집배원(통신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새벽'달을 이고 점심도 못 가지고 나갔다가 밤 늦게야 돌아 옵니다.

27 년 동안이나 배달부로 일했지만 아버지가 매 달 받는 임금이란 열식구가 한 달은 커녕 한 주일도 살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겨우 《국민 학교》에 이름이 붙어 있는 선옥이네 세 형제의 학비를 도저히 물어 줄 수 없었고 살'점이 드러나도록 헐벗은 딸들의 옷감을 살 엄두는 더욱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맏오빠는 《국군》에 끌려 나갔다가 미군 야수의 만행에 ·병신이 된 몸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 왔고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다가 늙었다고 쫓겨 났습니다.

온 가족이 우체국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몇 푼 안 되는 임금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굶기를 부자 놈 밥 먹듯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집 저집 돌아 다니며 딸의 소원을 풀어 주려고 돈을 꾸어 보려했으나 누구나 다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에서는 그것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래도 선옥이는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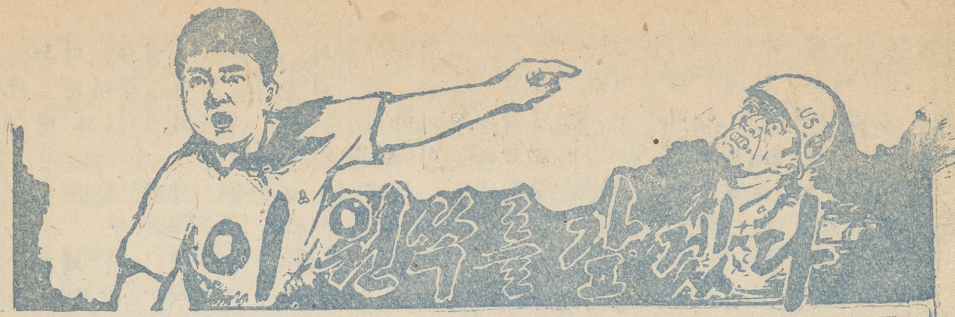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이는 끝내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 신문》 안동 지사를 찾아가서

《나의 입학금만 대여 주면 커서 은혜를 갚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다가 이 광고를 읽은 선옥이의 아버지는 밤새도록 가슴이 터져서 잠을 이루지 못 하였습니다.

선옥이의 아버지는 미제와 군사 깡패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 저주로운 사회를 당장이라도 뒤엎고 싶은 마음으로 불'덩이 같이 달아 오른 온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남조선에는 수 많은 선옥이들이 배우지 못 하고 길'가를 방황하면서 깡통을 차고 다닙니다.

수 많은 선옥이의 소원이 풀리자면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을 죽쳐 없애고 하루 바삐 삼천리 강토가 하나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미국 승냥이 놈들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참히 학살한 놈들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인 1950년 10월 어느 날이였습니다. 나의 고향땅인 황해남도 룡연군 석교리에도 미국 승냥이 놈들이 기여 들었습니다.

놈들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로동당원이라고 맨 먼저 잡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로 귀를 꿰고 소달구지에 매달아 석교리 소재지를 하루 종일 끌고 다녔습니다.

그 날 저녁무렵 맥 없이 쓰러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데 묶어 깊은 우물 속에 집어 넣어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빨갱이》는 시체도 못 건지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큰 바위'돌을 굴려다 우물에 쓸어 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착스러운 놈들입니까!

놈들은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나의 형님마저 학살하였습니다. 형님은 그 때 중학생이였습니다. 나의 형님은 비록 나이는 어리였으나 굴하지 않고 마지막 쓰러지면서도 《조선 로동당 만세!》를 용감하게 웨쳤습니다.

나는 동리 할머니의 도움으로 살아 남았습니다.

원쑤 놈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처럼 빼앗아 갔지만 나의 행복은 빼앗지 못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당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 세상에 부럼 없이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형님을 학살한 미제 원쑤 놈들이 아직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앉아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못 살게 굴고 무참히 학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나는 커서 반드시 인민 군대가 되여 아버지, 어머니, 형님의 원쑤를 갚겠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도당들은 우리와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원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제 원쑤 놈들을 없애 버리지 않고서는 영원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 쓰러지면서도 잊지 않은 조선 로동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는 당의 붉은 전사로 꾸준히 배우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평양 기술 학원

기술반 1의 2 반

박 영 호

(이것을 아십니까?)

다람쥐의 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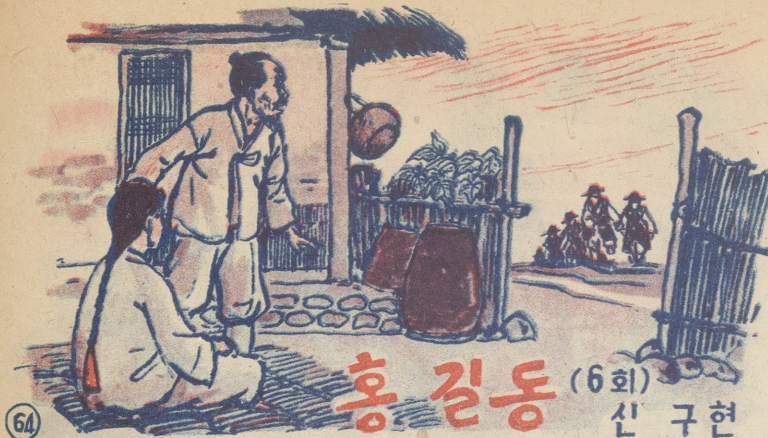
동무들은 산에 등산이나 야영을 가서 나무'가지 우에서 마음 대로 다니는 다람쥐를 보았을 것입니다.

동무들은 그 다람쥐의 꼬리에 대하여 관찰하고 생각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다람쥐의 꼬리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키를 이리저리 돌리면 배'머리가 이쪽 저쪽으로 돌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람쥐도 이 나무, 저 나무로 뛰면서 꼬리로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홍 길동 (6회)

신 구현

64 지리산마 도화동이 륙십리 밖에 안 되는 남원 가까운 마을에 다달았을 때 있은 일이였습니다. 길동은 해인사 습격 이후의 민심을 알아 볼 겸 산에서 내려 찌그러진 어느 초가에 들렀습니다. 6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집 주인과 봉당에 걸터 앉아 《활빈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노릇인지 수십 명의 관군이 한 길쪽에서 달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로인은 당황해 하더니만 길동을 안방에다 숨기고 문을 꽉 닫았습니다.

65 관군 놈들은 방금 들어 온 도적이 어디 있느냐고 로인을 땅땅 을러댔습니다.

길동은 조화를 부려 몸이 보이잖게 하였습니다.

로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 뗐습니다. 백 여 리 밖에서부터 뒤를 따랐는데 거짓말 말라고 관군 놈들은 우격다짐을 했습니다. 광군 놈들은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뒤지려 봉당에 올라 섰을 때 로인은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안 된다 안 돼! 무지막지하기로서 녀자가 있는 방을 함부로 넘나든단 말인고.》

하고 호령을 하였습니다.

로망을 쓴다고 왝왝거리며 관군 놈들은 로인을 밀치고 방으로 뛰여 들어가 샅샅이 뒤지다가 돌아 가 버렸습니다.

66 《할아버지 저 때문에 봉변을 당하셔 죄송하와요.》

길동은 방에서 달려 나와 마당에 곤두러진 로인을 잡아 일쿠었습니다.

《아이쿠, 허리야 빨각 되잖은 게 용하오. 축지법과 둔갑법을 쓴다드니만…》 로인은 유심히 길동을 훑어 봅니다. 길동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 조화는 내 몸 하나를 감싸 주고 백성들의 조화는 수천 수만 사람들을 감싸 줄 수 있잖는가?》

67 길동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로인이 이야기를 끄집어 냈습니다.

《활빈당 홍 길동 행수는 년세가 얼마나 되였소?》

길동은 시치미를 떼고

《우리 나이 또래지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젊은 분이라니 내 4 년 전에 지리산 도화동을 찾아 가는 도중에 만나 본 새파란 젊은이가 생각 나서 묻는 게요.》

길동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고 또 보니 4 년 전에 길목에서 도화동을 대 주던 로인이 틀림 없었습니다.

(68)길동은 솟구치는 반가운 정을 억제할 수 없었으나 갈'길이 바빠서

《할아버지 은혜를 꼭 갚겠사와요. 행수께 할아버지 말씀 꼭 전하겠사와요. 안녕히 계셔요.》 하고 집을 나서 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도화동을 향하여 승리의 행군은 다시 계속되였습니다.

(69)길동이 동화동에 당도한 것은 새벽녘이였습니다. 환호하는 소리에 도화동은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이 번 싸움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치고 길동이 일행보다 앞서 돌아 온 치백이, 홍갑이 일행도 《활빈당》이라고 쓴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길동을 열렬히 맞이하였습니다.

(70)승리를 축하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에서 길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용감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아니 되오. 우리가 합천 해인사를 습격하고 전라 감사까지 요절을 냈고 <활빈당>과 내 성명까지 공포했으니 놈들은 우리를 잡으려 갖은 발악을 할 것이요. 그러나 백성들이 우리 편에 있소.》

(71)잔치는 군중적인 노래와 춤으로 변했습니다. 길동이도 노래에 맞추어 춤을 덩실덩실 추며 뺑뺑 돌았습니다.

어제는 전라감사
캐지나 칭칭 나네

래일은 팔도 감사
캐지나 칭칭 나네

봄이 오고 꽃이 핀다
캐지나 칭칭 나네

....
....

(72)노래와 춤 밖에 칼춤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도화동 영웅 호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길동의 칼춤이였습니다.

길동은 초인 (풀로 만든 허수아비) 일곱을 만들어 세워 놓고 조화를 부리여 모두 길동이로 변하여 칼춤들을 추는데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알 수 없었고 어찌나 솜씨가 능란하고 동작이 빠른지 칼날은 번개같이 공중에서 번쩍거리며 쩽그랑쩽그랑 소리만 났습니다.

(73)다음 날이였습니다. 길동이는 치백이, 홍갑이 등 여덟 장수를 모아 놓고 말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합천 해인사를 털고 또 전라감사까지 쳐서 소문이 자자해지자 경상, 전라 감사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잡으려 날뛰고 있소, 잘못 하면 잡힐 수가 있으니 묘한 수가 있으면 말들을 하시오.》

여러 장수는 저마다 자기 의견들을 말하였습니다. 신통하게도 길동이 생각과 같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길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여러 장수들이 자기가 맡은 도에 가서 싸우자는 의견은 참으로 훌륭하오.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딴 도들의 백성들도 포악스러운 관리 놈들과 지주들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가난과 주림 속에 빠져 있으며 구원의 손'길이 뻗칠 것을 바라고 있소. 그러니 우리가 팔도에 흩어져서 싸우면 인민들의 원한들을 풀어주니 좋고 우리들을 잡으려고 조여드는 원쑤들의 힘을 꺾을 수 있고 도화동도 지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소…》

(74) 팔도 진격을 앞두고 도화동에서는 매일같이 싸움 련습이 벌어졌습니다. 길동은 여덟 장수에게 도술을 배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믿고 그들이 우리를 도울 때에만 조화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오…》

(75) 길동은 또한 칠성이를 남원으로 보내어 고덕산 밑 할아버지를 모셔 오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도화동 살림살이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칠성이 안내를 받아 할아버지가 온 곳이 바로 도화동이고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 바로 십년 전에 멍석을 타고 하늘 높이 떠가던 소년임을 알고 몹시 반가와 하였습니다.

평생 소원을 풀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노라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길동은 할아버지를 친절히 위문하고 도화동 살림살이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76) 팔도 진격을 축하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도화동 어른으로 높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도화동에 남아 있는 늙은이, 아낙네, 어린이들을 할아버지가 돌보게 되였습니다.

《안심들 하고 싸움만 잘 하시오. 도화동을 위하여 모든 힘,모든 정성을 다 바치겠소…》

할아버지 말씀은 영웅 호걸들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였습니다.

(77) 그 날 밤으로 여덟 장수는 각각 수백 명씩 거느리고 도화동을 떠나 팔도로 흩어졌습니다.

길동은 도화동에 있으면서 여덟 장수를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멍석을 타고 다니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동 시)

세상에 부럼 없이

6월의 하늘 높이
소년단 기'발을 자랑스레 날리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광장으로! 광장으로!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소년단 열일곱돐 명절 맞는,
우리는 자랑찬 조선 소년단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오늘은, 우리의 명절 날
아버지—원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의 대렬을 보고 계십니다.

새로 내여 준 교복은 맞는가
지난 해엔 몸과 마음 얼마나 자랐는가
모두들 야영소에 다녀 왔는가
원수님은 일일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동무들아 발을 맞추자!
다 함께 원수님께 대답을 드리자!
《우리는 원수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세상에 부럼 없이 행복합니다!》

황해남도 은률군 매조 중학교
3 학년 김 효수

(동요)

《조선소년의 영예》 빛낸 대요

중등반 3 학년
명철 형님의 가슴엔
언제나 반짝반짝
오각별이 빛나요.

2 년 전 6.6 절 때
평양 가서 받은 휘장
《조선 소년의 영예》 휘장,
언제나 앞가슴에 빛나요.

해마다 6.6절 명절 때면요
형님은 맘 속에 새겨 본대요.
《조선 소년의 영예》를
지난 해엔 얼마나 빛내였는가?

그러면 또 생각난대요.
당 중앙 위원회 편지의 구절구절이,
언제나 형님은 그 가르침 따라
《조선 소년의 영예》 더욱 빛낸대요.

자강도 강계시 강계 중학교
인민반 4 학년
리 성근

《소년 신문》 지상 작문 발표회 3 등 당선 작품

(작 문)

원수님의 말씀 명심하고

울긋 불긋한 단풍이 한창 온 산을 물들인 지난 해 가을 어느 날이였습니다. 그 날 공부를 끝마치고 선생님은 우리들을 걸상에 앉으라고 하시고는 5월 3일 청소년 교양에 대하여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여 주시였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은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풍금 치는 련습을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풍금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나도 풍금 곁에 가서 풍금을 만지작거려도 보고 선생님처럼 입을 벌려 보면서 풍금을 치겠다고 졸랐습니다. 선생님은 이건 《도》고 이건 《솔》이라고 하시면서 《붕붕》 소리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더욱 재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자주 악보를 배워 주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마분지에 풍금처럼 그려 가지고 다니며 손 놀리는 련습도 해 보고 밤에 누워서도 《도, 레, 미…》 하고 큰 소리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어머니도 웃었고 동생들은 《언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하고 물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아침에도 학교에 일찍 와서 련습 해 보고 밤에도 풍금 련습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늘 련습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꼭 풍금을 치자고 애를 썼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은 내가 열성적으로 풍금 련습을 한다고 동무들 앞에서 칭찬도 해 주고 벽보에도 내 주었습니다. 나는 끝내 풍금을 치게 되였습니다. 나는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제일 잘 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풍금을 칠 때마다 몹시 기뻐하시며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악기를 더 잘 다루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네》 하고 큰 소리로 힘 있게 대답하고 풍금을 더 잘 치기 위해 열심히 련습합니다.

함남 광천군 고저 제 3 인민 학교
제 2 학년 최 선옥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기에

김 일성 원수님—
부르기만 해도 다정한 그 이름.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하여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나지요.

일제 식민지 암담한 날에는
조국 독립의 해'불 높이 들어
우리의 갈 길 밝혀 주셨으며

침략자 미제가 조국 땅 짓밟을 때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 주셨으며

목숨으로 지킨 우리 나라
재'더미 되였을 때
천리마 새 건설에로 이끌어 주시였지요.

간고한 날 빨찌산을 조직하셨으며
새 조선 지키는 인민군 육성하셨으며
영광찬 로동당 지도하시였지요.

우리들은 압니다.
김 일성 원수님 계셨기에
오늘의 행복한 우리들이 있음을.

원수님 뜻 대로 공부 잘 하여
우리들은 꼭 애국자가 되렵니다.

일본 동경 중고급 학교
중 1학년 고 보화

《조선 소년》 1962년 4월 1일부에서 전재

(작 문)

나는 잘 알았다

나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일본에 있으면서도 조국의 벗들과 같이 아무 걱정 없이 아름다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김 일성 원수님이 지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있으므로하여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남반부 형제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는 나날이 발전되여 가고 있으며 7 개년 계획에서 빛나는 성과를 올리면서 행복한 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 놈들이 침략하고 있는 남반부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악독한 리 승만보다도 더 나쁜 부랑배들이 정치를 잡고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며 아무 죄도 없는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감옥에 잡아 넣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갑니다. 우리의 많은 동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입을 것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들이 미국 놈들한테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한 날 한시에 해방된 조국 땅이 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가! 다 같은 우리 형제들이 왜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 군사 분계선은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인가!

나는 이것들이 다 누구 때문인가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을 못살게 하는 것은 미국 놈들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자도 미국 놈들입니다.

이 쓰라린 생활을 참다가 못 참아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쫓아 내기 위하여 지난 6월 6일 서울에 있는 고려 대학의 형님들이 용감하게 일떠섰습니다.

우리들은 힘을 합쳐서 미국 놈을 조국 남녘땅에서 쫓아 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남조선 동무들!

미국 놈들이 조국 땅에서 도망쳐 가도록 더욱 용감히 싸웁시다.

조국 통일 만세!

일본 오까야마 초 중급 학교
초급부 5 학년 류 임순
(《조선 소년》 1962년 7월 25일 부에서 전재)

(야영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 유희)

속 담

△ 쥐도 한 모를 긁으면 구멍이 난다.
(힘이 비록 약하더라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성공 못 할 일이 없다는 말.)

△ 초년 고생은 은을 주고 산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

△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고난을 겪고 나면 좋은 일이 있다는 말.)

원을 밟고 뛰기

모래 밭이나 운동장에 그림과 같은 둥그런 원들을 그리고 한 원에서 다른 원에로 넘어 뛴다. 이 때 원의 둘레를 밟지 말아야 한다. 원의 둘레를 밟지 않고 건너 뛴 사람이 승리한다.

이 유희는 개별적 동무들끼리도 할 수 있고 두 편으로 갈라서 할 수도 있다. 두 편으로 갈랐을 때는 원의 둘레를 밟지 않은 사람이 많은 편이 승리한다.

현상 문제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주전자가 있습니다. 어느 주전자에 물이 더 많이 담기겠습니까? 그리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창문 건너 뛰기

이 놀음을 하자면 길이 1m 가량의 노끈이나 막대기 4 개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두 동무가 그림과 같이 《창문》을 만든다.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또는 편을 나누어 멀리서 뛰여 오다이 창 구멍으로 빠져 나간다. 이 때 노끈이나 막대기에 몸이 닿지 말아야 한다. 놀면서 창문은 마음 대로 좁힐 수 있다. 노끈이나 막대기를 다치지 않은 사람이 승리한다.

★ 3호 현상 문제 해답

수남이는 무거운 쇠 빠이프를 배에 싣지 않고 배의 량옆에다 매달고 건너 갔다. (수남이는 학교에서 배운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리용한 것이다.

★ 3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북도 의주군 의주 중학교 정 등자
평북도 신의주시 백운 중학교 리 시택
평양시 서장 중학교 한 정희
함남도 북청군 성등 중학교 김 득섭
함남도 함주군 삼평 중학교 리 안수, 한 정열
량강도 부전군 광대 중학교 리 학숙
황남도 재령군 강교 중학교 량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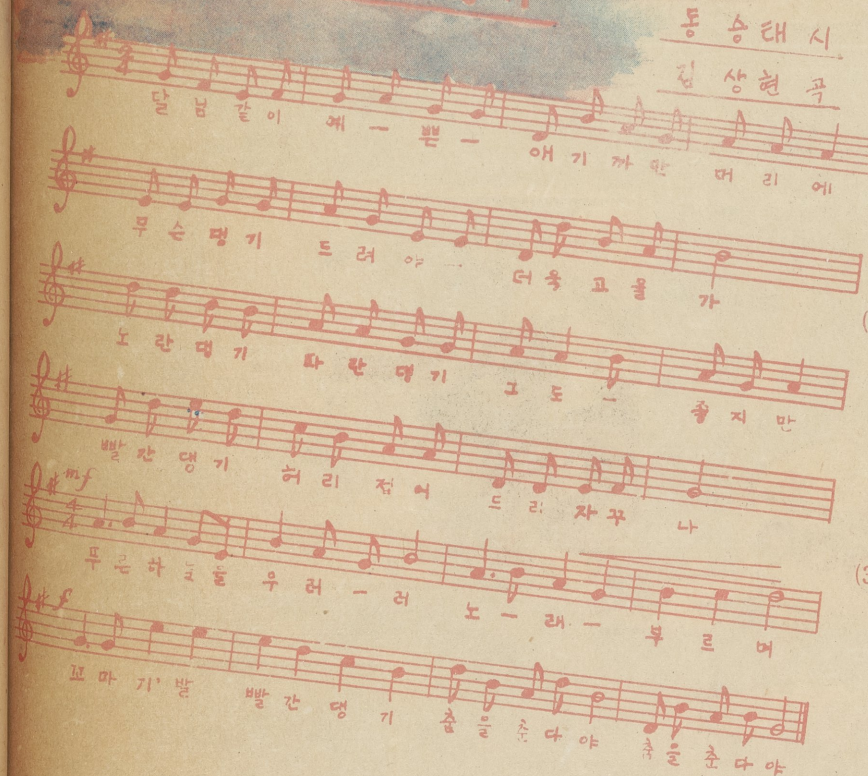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년 제 6 호 (총 164 호)
1963년 5월 25일 인쇄
1963년 6월 1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264 값25전

빨간 댕기

동승태 시
김상현 곡

달님 같이 예—쁜— 애기 까만 머리에
무슨 댕기 드려야 더욱 고울가
노란 댕기 파란 댕기 그도— 좋지만
빨간 댕기 허리 접어 드리자꾸나
푸른 하늘을 우러—러 노—래— 부르며
꼬마 기'발 빨간 댕기 춤을 춘다야 춤을 춘다야

(2)꽃잎 같이 예쁜 애기 까만 머리에
푸른 댕기 드려야 더욱 고울가
분홍 댕기 감사 댕기 그도 좋지만
빨간 댕기 허리 접어 드리자꾸나
푸른 하늘 우러러 노래 부르며
꼬마 기'발 빨간 댕기 춤을 춘다야
춤을 춘다야.

(3)김 장군님 아동단 복순이처럼
빨간마음 꽃봉오리 활짝 핀다야
빨간 댕기 빨간 댕기 제일 고운 댕기
백두산의 아버지들 찾아준 댕기
푸른 하늘 우러러 노래 부르며
로동당과 수령님께 감사드리자 인사드리자.

(26) 용남— 운석들이 초속 20~100km의 속도로 공기와 마찰하니 저렇게 타버리는구나
　철웅— 응, 그래 저 운석도 쇠'늘이란다.

(25) 용남— 혼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되니?
　철웅— 그건 산악 지대에서 지형이 바께쯔처럼 생긴 곳은 어떤 데나다 태양의 열에 의하여 더워진 공기가 우로 올라 가고 찬공기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오는 데 그 힘이 굉장하단다. 우린 방금 그런 곳에 걸려 들었댔단다.
　용남— 저 골짜기엔 왜 날짐승들이 죽은 것이 많을가?
　철웅— 그건 날짐승들이 이런 공기 함정속에 들어 가 돌멩이처럼 떨어져 죽은 것이란다.

(27) 용남— 야, 극광 현상이 보이는 구나.
　철웅— 그 속에 들어가 보자. 극광 현상이 일어 나는 건 하늘 높은 곳에서 산소나 질소의 알맹이들이 해빛에 의하여 더 작은 음전기를 띤 알맹이와 양전기를 띤 알맹이로 갈라질 때 생기는 현상이야.
　용남— 그런데 왜 하늘이 환할가?
　철웅— 그건 전기를 띤 알맹이로 갈리질 때 많은 열을 내면서 빛을 내기 때문이란다.

그림 안 창수

(28) 용남— 이제 더 올라가면 어떨가?
　철웅— 이제 좀 더 올라가면(지구로부터 1000km정도) 무중력 상태가 일어나는 공기없는 곳이야.
　용남— 그러면 이전 그만 내려가자.
　철웅— 응 그래.

(29) 철웅— 지금 땅에선 몹시 가문다고 무전이 왔어.
　용남— 저기 구름덩이가 보이는구나.
　철웅— 우리 저 구름에서 인공적으로 비를 오게 만들자.
　용남— 이렇게 령하 70도나 되는 《고체 탄산》을 뿌리면 구름 속이 차지며 수증기가 랭각된단 말이거든.
　철웅— 그래 랭각된 수증기가 일정한 크기의 물방울이 되면 땅에 떨어져 비가 된단말이지.
　용남— 그럼 이거봐, 비를 오게 하니 감사하다는 전보가 오구 있어.

(30) 철웅— 우린 이 번에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될 많은 자료들을 알아낼 수 있었어.
　용남— 그걸 과학자 아저씨들에게 올리면 기뻐하시겠지.
　철웅— 벌써 광장엔 우릴 맞기 위해 많은 군중들이 모였구나. 빨리 내려가자!